

문화 서울



문화+서울

ARTS CENTER

참여형 음악쇼 <공연의 주인공은 나>
 영등포문화재단은 역동적이고 유머러스한 캐나다 공연 팀 SAMAJAM을 초청해 <공연의 주인공은 나(SAMAJAM! You are the Show)>를 진행한다.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어린이를 위해 준비한 공연으로, 재미있고 매력적인 음악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 공연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영등포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월 4일 오전11시·오후 2시 | 영등포아트홀 | 02.2629.2237



1

2



5월, 서울어린이대공원으로 '웰컴'
 서울시는 5호선 아차산역에서 서울어린이대공원 후문에 이르는 진입로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 5월 5일부터 개방한다. 다양한 꽃과 대왕참나무를 심어 '웰컴정원', '웰컴광장'으로 꾸미고, 넓은 잔디밭에서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광장을 조성했다. 다양한 축제와 공연이 열리는 '버스킹 테라스'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점핑 그라운드'도 만들어진다. 오는 5월엔 일상에 들어선 녹지 공간을 마음껏 누려보는 건 어떨까.



가족극 <오늘도 바람>
 광진문화재단 나루아트센터의 새로운 상주단체 '올리브와 전공'이 첫 번째 공연을 선보인다. 바람의 섬, 와랑섬을 지키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주인공 시리의 모험! 범람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옳은 것인지 점점 알기 어려워진 요즘, 진실을 마주하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5월 11일과 12일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02.2049.4700

4

이상한어린이연극 오감도
13인의아해가종로를질주하오
4월 26일 — 5월 6일 아이들극장

<이상한 어린이 연극-오감도>
 이상의 시 '오감도'를 어린이의 시선에서 해석한 <이상한 어린이 연극-오감도>가 종로 아이들극장 개관 8주년 공연으로 개막해 5월 6일까지 공연한다. 연출가 강훈구가 이끄는 극단 공놀이클럽과 아이들극장이 함께 제작한 이번 공연은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어린이 배우 10명과 어른 배우가 '오감도' 속 '13인의 아해'가 돼 대본 작업부터 공연 완성까지 함께했다.
5월 6일까지 | 아이들극장 02.2088.4237

5

2024 궁중문화축전
 아름다운 궁궐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전통문화 콘텐츠를 선보이는 궁중문화축전이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올해는 예약하지 않아도 궁을 찾는 관람객이 현장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상설 프로그램을 확충한 것이 특징이다. 4월 26일 시작해 5월 5일까지 주요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행사 기간 이후에도 창덕궁 달빛기행(6월 2일까지), 덕수궁 밤의 석조전(5월 25일까지), 경복궁 생과방(6월 24일까지) 등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경복궁에서는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 <시간여행, 세종>, 고궁음악회 <100인의 치세지음>, 고궁뮤지컬 <세종, 1446> 등이 진행되며, 창덕궁에서는 전통공예 전시 <공생: 시간간의 중첩>이 준비됐다. 고종의 숨결이 남아 있는 덕수궁에서는 가배(커피)·옥돌(당구)·음악 등 왕이 사랑한 취미 생활을 체험하는 '황실취미회'가 열린다. 소박하게 거닐기 좋은 창경궁에서는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어린이 궁중문화축전', 야간 탐방 프로그램 '창경궁 물빛연화', 경희궁 곳곳에서는 역사 탐방 프로그램 '경희궁을 만나다'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궁중문화축전 누리집 또는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월 5일까지 |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경희궁·종묘 | 1522.2295



3

서울예술단 <천 개의 파랑>
 천선란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창작가무극 <천 개의 파랑>이 막을 올린다. 작품은 로봇 콜리와 경주마 투데이를 중심으로 동물과 로봇, 인간과 종을 넘어선 이들의 화복과 화해의 연대를 그리며, '가장 낮은 가능성에서 가장 높은 희망을 품는 사람들'에 집중한다. 그간 한국적이면서도 참신한 소재를 발굴해 창작극으로 선보여온 서울예술단은 이 작품을 통해 행복과 위로, 애도와 회복, 정성성과 결합, 실수와 기회, 자유로움에 깃든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자 한다. 김한솔이 극작과 작사를 맡고, 김태형이 연출했다.
5월 12일부터 26일까지 |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 02.523.0986



6

2024 강서 아이들 까치까치 페스티벌
2024. 5. 25(토)
까치컬투 민형
 12:00 - 17:00 강서구민회관, 우정근린공원

2024 강서 아이들 까치까치 페스티벌
 강서구는 미취학 아동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축제를 개최한다. 5월 청소년의달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동요 부르기, 그림 그리기, 골짓기 등 자랑 부문과 축하공연, 청소년 동아리 버스킹 공연 등 공연 부문, 놀이 부스 운영을 비롯한 체험 부문으로 나뉜다. 행사는 5월 25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강서구민회관과 우정산근린공원에서 열리며, 축제 전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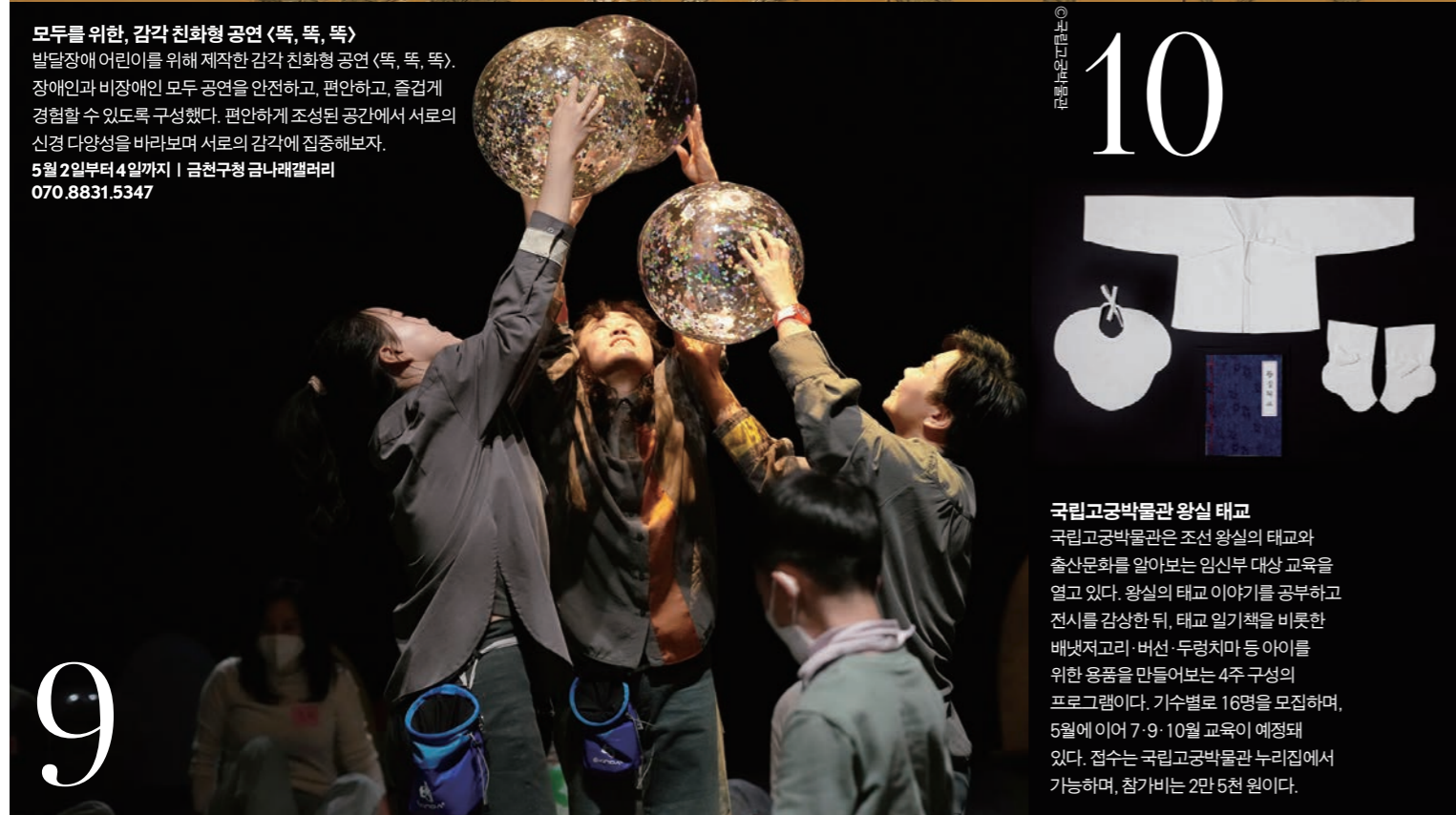
8

《한국 근현대 자수: 태양을 잡으려는 새들》

비늘을 도구 삼아 다채로운 색실로 직물을 장식하는 자수는 인류의 오랜 문화유산 중 하나다. 2천 년 역사를 지닌 한국 자수는 동아시아 국가와 교류하며 시대마다 독특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웠다. 전시는 알려지지 않은 자수 작가와 작품을 발굴·소개하고, 미술사에서 주변화된 자수 실천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전개됐는지 살펴본다. 관람객은 섬세하고 아름답게 수놓은 듯한 자수의 역사 뒷면에 순수미술과 공예, 회화와 자수, 남성과 여성, 청초와 모방, 전통과 근대, 서양과 동양, 공과 사, 구상과 추상, 수공예와 산업(기계)공예, 아마추어리즘과 프로페셔널리즘 등 여러 층의 실이 얽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5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 02.2022.0600

김규진 외, 《자수 매화도 병풍》, 1870년대~1930년대, 비단에 자수, 148×381.8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모두를 위한, 감각 친화형 공연 <똑, 똑, 똑>

발달장애 어린이를 위해 제작한 감각 친화형 공연 <똑, 똑, 똑>.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공연을 안전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편안하게 조성된 공간에서 서로의 신경 다양성을 바라보며 서로의 감각에 집중해보자.

5월 2일부터 4일까지 | 금천구청 금나래갤러리 | 070.8831.5347

10



국립고궁박물관 왕실 태교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실의 태교와 출산문화를 알아보는 임신부 대상 교육을 열고 있다. 왕실의 태교 이야기를 공부하고 전시를 감상한 뒤, 태교 일기책을 비롯한 배냇저고리·버선 두렁치마 등 아이를 위한 용품을 만들어보는 4주 구성의 프로그램이다. 기수별로 16명을 모집하며, 5월에 이어 7·9·10월 교육이 예정돼 있다. 접수는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참가비는 2만 5천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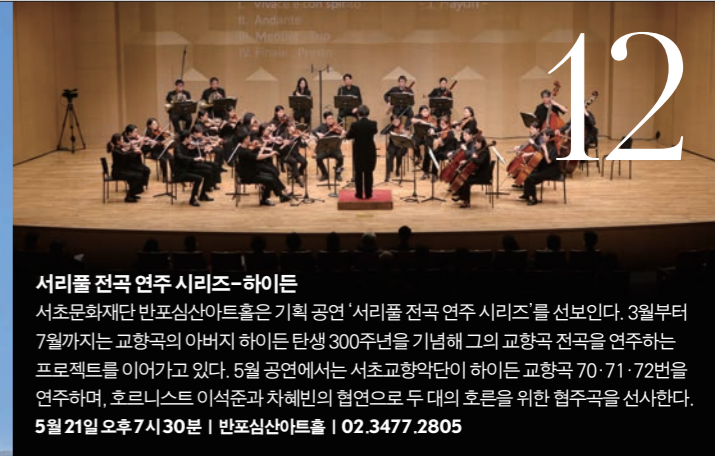
9



11

서울야외도서관 개장

봄날을 만끽하며 포근한 빈백에 누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서울야외도서관이 4월 18일 개장했다.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청계천에서 운영되며, 실내에 한정된 도서관을 야외로 확장해 도심 속에서 휴식과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야외도서관 세 곳에는 총 1만여 권의 책이 비치된다. 서울광장 5천 권, 광화문 책마당 5천 권, 청계천 책 읽는 맑은 냇가 2천 권 등이다.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스도 마련되며, 공연을 비롯한 참여 프로그램도 매주 새롭게 준비된다.



12

서리풀 전곡 연주 시리즈-하이든

서초문화재단 반포심산아트홀은 기획 공연 '서리풀 전곡 연주 시리즈'를 선보인다. 3월부터 7월까지의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 탄생 300주년을 기념해 그의 교향곡 전곡을 연주하는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5월 공연에서는 서초교향악단이 하이든 교향곡 70·71·72번을 연주하며, 호른리스트 이석준과 차혜빈의 협연으로 두 대의 호른을 위한 협주곡을 선사한다. 5월 21일 오후 7시 30분 | 반포심산아트홀 | 02.3477.2805



13

어린이를 위한 한옥 해설 프로그램
눈으로 보고, 듣고, 만져보는 한옥 이야기!

한옥아 놀자!
북촌문화센터는 어린이를 위한 한옥 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도심 속에 위치한 백년 역사의 계동 근대 한옥에서 우리의 옛 문화와 건축 양식을 살펴보는 소중한 기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서울한옥포털에서 예약하거나 북촌문화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5월 4·11·18·25일 오전 10시 30분 | 북촌문화센터 | 02.741.1033



14

문화로 물드는 서울의 밤

매주 금요일 밤, 서울 전역에서 '서울 문화의 밤'이 펼쳐진다. 시립으로 운영되는 문화시설 아홉 곳이 금요일마다 야간 개장하며, 곳곳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연다. 야간 개장 대상은 서울역사박물관·한성백제박물관·서울공예박물관·서울우리소리박물관·서울시립미술관을 비롯한 박물관·미술관 5개소와 남산골한옥마을·윤현궁·서울도서관 등이다. 온 가족이 나들이하기 좋은 5월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의 밤', 뜨거운 열기를 간직한 6월부터 8월까지의 '달빛 문화예술 탐험'이 진행된다. 더불어 대학로 우수 공연을 1만 원에 관람할 수 있는 야간공연 관람권을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학로티켓.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

어린이 연극 <고래바위에서 기다려>
아시테지 서울어린이연극제 대상 수상에 빛나는 체험형 어린이 연극 <고래바위에서 기다려>가 5월 노원어린이극장으로 찾아온다. 익살 넘치는 컬러 스크린으로 표현한 캄캄한 고래 배속, 그 속에 사는 형형색색의 생명들! 상상을 뛰어넘는 색채의 향연으로 강렬한 추억을 선사하는 '놀극'(누워서 즐기는 연극)이 될 것이다. 5월 11일과 12일 | 노원어린이극장 | 02.2289.3451

16



해리 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인 콘서트

드넓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영화 상영과 오케스트라 연주를 동시에 즐기는 <해리 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인 콘서트>가 열린다. 2019년 이래 꾸준히 해리 포터 필름콘서트를 소개해온 세종문화회관의 네 번째 시리즈 공연이다. 어둠의 마법사 볼드모트가 돌아왔으나 진실을 감추기에만 급급한 마법부, 다가올 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힘을 갖추기 위한 비밀 훈련을 시작하는 해리. 론. 헤르미온느의 여정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지금까지 오케스트라 공연은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관객이라면 이번 공연이 선입견을 깨줄 것이다. 대만 출신의 지휘자 시흥 영이 포디엄에 서고, 성남시립교향악단이 연주한다.

5월 11일과 12일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02.399.1000

18



<시공時空 시나리오>

서울시립미술관은 올해 전시 의제로 '건축'을 내세우고 미술관이라는 상징적인 공공 건축이 함의한 건축의 생애주기에 주목한 전시를 준비했다. 특히 건축가가 참여하지 않는 건축 전시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며, 미술관에 내재한 시간과 공간에 다차원적으로 접근해 미술관에서의 경험을 강조한다. 전시실은 '건축과 시간', '미술관의 시간', '상상의 시간' 등 세 개 섹션으로 나뉘며, 서도호·구동희·박기원 등 12명(팀)이 설치·영상·회화·사진 작품 20점을 선보인다.

7월 7일까지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2·3층 | 02.2124.8800

19



아르코미술관×지역문화재단 협력기획전 <여기 닿은 노래>

아르코미술관은 올해 첫 전시로 광주·부산·서울문화재단이 협력한 <여기 닿은 노래>를 선보인다. 예술가 및 단체 13명(팀)의 신작을 포함한 작품 40여 점이 전시된다. 전시는 아르코미술관이 위치한 혜화역과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자주 접하는 장애인의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질문하며 시작한다. 또 최근 들어 자주 언급되는 장애예술·배리어프리 등 장애와 비장애를 이분하는 단어 사용과 작품 설명을 지양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넘어 개개인의 삶의 속도 및 시간의 다양성을 어떻게 인지하고 인정할 것인지를 작품을 통해 이야기한다.

6월 30일까지 | 아르코미술관 제1·2전시실 | 02.760.4617

©세종문화회관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안무가이자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매슈 본과 그의 단체 뉴 에드벤처스가 2019년 초연한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내한한다. 익숙한 이야기를 번주해 새롭게 들려주는 스토리텔링 능력이 탁월한 안무가가 이번에 선택한 작품은 셰익스피어가 쓴 불멸의 로맨스이자 프로코피예프가 작곡한 걸작 '로미오와 줄리엣'. 고전의 배경을 현대사회로 옮기고, 10대와 20대 무용수를 중심으로 선발해 젊음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무대를 만들었다.

5월 8일부터 19일까지 | LG아트센터 서울 1661.0017

17



©Joan Persson

연극 <실종법칙>

올봄 예술의전당은 인간 내면의 깊이와 심리를 보여주는 추리극 <실종법칙>을 선보인다. 202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황수아 작가가 대본을 쓰고, 차세대 연출가 문새미가 연출을 맡았다. 한 사람이 실종된 순간을 중심으로 긴박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진실, 서로를 속고 속이는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다룬다. 예상치 못한 반전과 계속해서 등장하는 사건으로 이야기는 점차 흥미진진해지는데... 배우 심원준·이형훈·노수산·김조가남·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5월 12일까지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1688.1352

『시공時空 시나리오』 전시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2층 『여기 닿은 노래』 전시 전경, 아르코미술관 제1·2층



20

이달, 주목할 서울의 문화예술 소식 20

SCENE

서울서커스페스티벌

10 프리뷰
노들섬에서 만나는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의 모든 것

16 디렉토리
당신의 눈을 사로잡을
서커스기에 7

22 인터뷰
사람이 없으면 재주도 없다

26 부
전시로 만나는 '일상의 서커스'

30 예술가의 진심
김준수의 소리는
흐르는 물처럼, 때로는 파도처럼

36 예술인 아카이브
김래혁

38 예술인 아카이브
정아룡

40 페이퍼로그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양천팀 이대욱
영감이 가득한 수조를 거닐며

42 인사이드
위험을 감수하는 창작의 자유를 위하여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공동창작워크숍 결과 전시

44 인사이드
모두의 일상이 예술이 되는 곳
서울시민예술학교 봄 시즌

46 트렌드
아프리카 창조도시의 미래 ❶

COLUMN

52 박현갑의 문화의 창
산천어축제와 이근희 기념관

54 걷다가 마주친 춤
여흥의 효율

56 낫말은 새가 들고 날말은 시가 춤는다
한데 모여 사는 단어들—먹고살다

58 서울, 문화가 뿌리내린 도시
가락으로 기억하는 명인의 일생

59 예술의 숨결이 공간에 깃들 때
그림으로 빛꽃엔딩

62 컨트리뷰터

ASSOCIATED

FOCUS



COVER STORY

서울서커스페스티벌과 여덟 재주꾼
창작집단 사람과 재주상단, 어름사니
서주향이 한데 모여 우리의 재주를 펼친다.
서울서커스페스티벌에서 선보일 <옛,다!>
연습이 벌어지는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에서
여덟 명의 재주꾼을 만났다.
사진 강민정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인 이창기 편집 총괄 이주영 기획·편집 안미영 편집위원 전민정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편집·디자인 designikki 인쇄·제책 더프레스(주)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A.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 02.3290.7124 F. 02.6008.7347 W. www.sfac.or.kr
ISSN 1739-774X 웹진 www.sfac.or.kr/magazine 등록번호 동대문, 라00036 발행일 2024년 4월 30일
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의 창조적 힘과 시민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문화+서울]은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독자를 위해 데이지(DAISY) 파일을 제공합니다.

확자지결 특별한 섬에서의 하루 서울서커스페스티벌

올해 7회를 맞이하는
국내 유일의 서커스 축제,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이
노들섬에 상륙한다.
볼거리, 즐길 거리
가득한 곳으로 따사로운
봄 햇살이 내리쬐는 5월을
만끽하러 가볼까!



노들섬에서 만나는 서울서커스 페스티벌의 모든 것

팬데믹과 이상 기후로 지난 몇 년간 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이 올해,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돌아왔다.

서울문화재단이 진행하는 국내 유일의 서커스 축제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이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다. 2018년 5월, '서커스 카바레'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한 축제는 서울서커스페스티벌로 이름이 바뀌었고, 문화비축기지에서 시작해 열린송현녹지광장을 거쳐 노들섬으로 장소도 옮겨 왔다. 그간의 이야기를 품은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한층 더 다채롭게 돌아온 올해 축제를 살펴보자!

거슬러 짚어보는 서커스의 역사

'서커스Circus'의 어원은 고대 로마 시대에 가장 큰 전차 경기장으로 알려진 키르쿠스 막시무스Circus Maximus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로마인들은 이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 모여 전차 경주뿐만 아니라 검투사 대결, 승마 경주, 동물 사냥 등 다양한 종류의 경기를 오늘날의 공연처럼 즐겼다고 한다. 현대적 의미에서 서커스의 기원은 18세기 영국의 에스틀리 원형극장Astley's Amphitheatre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원형극장의 주인이자 승마 전문가였던 필립 에스틀리Philip Astley는 처음엔 본인이 직접 말 위에 올라타 음악에 맞춰 곡예를 펼치는 서커스 공연을 선보였다. 그리고 이후에는 당시 극장에서 막간극으로만 활용되던 줄타기, 광대극, 곡예 쇼 등을 원형극장 안으로 모두 불러 모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서커스 공연으로 만들었다. 고대 로마인들이 원형 경기장 안에서 다양한 쇼를 관람했던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원형 천막 극장 안으로 모여 기상천외한 서커스 공연을 즐겼다. 이후 서커스의 흥행은 100여 년에 걸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19세기 중반, 서커스는 이제 바다 건너 미국 땅을 밟는다. 우리에게 영화 <위대한 쇼맨>의 실제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Phineas Taylor Barnum이 이끄는, 이른바 '지상 최대의 쇼'를 통해 서커스는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맞이한다. 이후 영화와 TV가 등장하고, 동물 학대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서커스는 쇠퇴의 길을 걷지만, 20세기 중반에 프랑스와 캐나다 몬트리올을 중심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된다. 이 시기 서커스는 국가의 예술정책으로 지원을 받고, 전문 양성학교가 설립되며, 대형 공연단체가 생겨나면서 이제 상업적인 성공을 넘어서 예술의 한 장르로서 인정받기 시작한다. 대표적으로 캐나다의 '태양의 서커스', 프랑스의 '컴퍼니 XY' 같은 단체가 컨템퍼러리 서커스라 불리는 오늘날의 서커스를 이끌고 있다.

한편 서커스의 원형은 굳이 먼 유럽이나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상모를 돌리며 공중을 날아다니고, 부채를 펼쳐 밧줄을 타며, 긴 막대로 대접을 돌리는 재주꾼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우리 고유의 공연이 있다. 바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남사당놀이'다. 신라 시대부터 유래했다고 알려진 민중 놀이패는 조선 후기에 들어 남사당패로 발전했다. 40~50명으로 구성된 남사당패는 꼭두쇠라고 불리는 우두머리의 지휘 아래 풍물(농악)·버나(대접돌리기)·어름(줄타기)·살판(공중 제비) 등 다양한 기예를 펼치며 전국 각지를 유랑했다. 이는 마치 여러 재주꾼을 원형 극장 아래 한데 모아 공연을 펼치던 서양 서커스의 유래와 닮은 모습이다. 어쩌면 서커스는 어느 한쪽의 문화권에서 유래하고 발전한 전유물이 아니라, 기이한 재주와 묘기를 보고 원초적인 즐거움을 느끼는 우리의 본능에서 출발한 문화가 아닐까?





2018~2019 서커스 카바레

국내 유일의 서커스 및 거리예술 전문 교육·창작지원·연습공간인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의 운영 3년 차를 맞아 국내 최초의 서커스 축제인 '서커스 카바레'를 개최했다. 이에 국내외 다양한 서커스 공연을 통해 마포구 소재 문화비축기지를 축제의 장으로 탈바꿈했고, 서커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관련 학술행사, 오픈 포럼, 아시아 서커스 관련 기관 네트워크 발족 행사 등을 진행했다.
→ 창작그림 노니 <동글게 동글게>(2018)



2020~2022 서커스 카바레&카라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축제 시기를 5월에서 9월로 옮기고, 관람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 규모를 축소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했다. 특히 2020년에는 드라이브 인 Drive-In 방식으로 축제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후 철저한 방역 조치와 함께 사전 예약을 통해 안전하게 축제를 운영했다.
← 컨컨 <도시조류도감>(2022)

2023 서울서커스페스티벌

축제 이름을 '서울서커스페스티벌'로 변경하고 더 많은 관객을 맞이하기 위해 열린송현녹지광장으로 이동했다. 공연 프로그램 외에 마련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플라마켓 등이 인기를 끌었다.
→ 뱀상 바랭 <해질녘>(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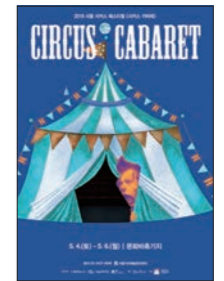


서울서커스페스티벌, 지난 축제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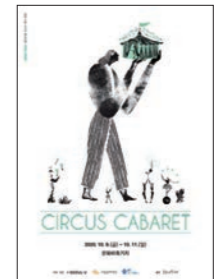
2018

서커스 카바레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문화비축기지
11,684명 관람



2019

서커스 카바레
5월 4일부터 6일까지
문화비축기지
71,181명 관람



2020

서커스 카바레&카라반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문화비축기지
7,989명 관람



2021

서커스 카바레&카라반
9월 3일부터 5일까지,
17일부터 26일까지
문화비축기지
7,360명 관람



2022

서커스 카바레&카라반
9월 9일부터 12일까지,
17일부터 25일까지
문화비축기지
23,086명 관람



2023

서울서커스페스티벌
5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린송현녹지광장
51,500명 관람



**미리 만나는 2024
서울서커스페스티벌**

푸른 잎이 돋아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5월, 올해도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이 찾아온다. 2018년 처음 개최된 이래 축제는 2020년부터 3년간 팬데믹의 영향으로 축제 날짜를 옮기거나, 관람 인원을 제한하거나, 공연 규모를 축소하는 등 여러 힘든 조건을 버텼었다. 그리고 2023년, 다시 본격적인 재개를 위해 준비했으나 이번에는 아쉽게도 거센 비바람이 축제의 발목을 잡았다. 축제가 진행되는 3일 중 하루 하기도 만나질 동안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공연이 끝내 관객을 만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튿날 오후부터 비가 그치며 해가 들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다렸다는 듯 수많은 관객이 열린송현녹지광장을 찾아 축제를 즐겼다.

지난 축제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올해는 더욱 치밀하게 운영을 준비했다. 2024년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은 가정의달이자, 어린이날이 있는 5월 4일부터 5일 이틀간 용산구에 위치한 노들섬에서 진행한다. 축제의 새로운 장소인 노들섬은 실내 공연장(라이브하우스)이 있어,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에도 실내에서 계속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축제 프로그램 역시 더욱 풍성하고 알차게 구성했다. 올해 공연 프로그램의 테마는 '서커스로 떠나는 시간여행'이다. 전통연희부터 근대 서커스와 현대 서커스까지, 시대에 따라 변화해온 서커스의 변천사를 축제 공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공연 외에도 서커스를 소재로 한 전시와 영화 상영이 준비돼 있으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퍼레이드와 플라마켓,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축제 공간을 가득 채울 예정이다.

공연 프로그램

올해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의 공연 프로그램으로 총 17편의 다채로운 작품이 준비돼 있다. 먼저 전통연희로 연희집단 The 광대의 <도는 놈 뛰는 놈 나는 놈>을 통해 풍물놀이·사자춤·남사당놀이 등 우리 고유의 재주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근대 서커스로 넘어가, 우리나라 서커스의 살아 있는 역사이자 올해로 창립 100년을 맞이한 국내 최장수 서커스 극단인 동춘서커스의 <초인의 비상>을 만난다. 또 50년 넘는 세월을 서커스와 함께해온 곡예사 안재근이 자신의 서커스 인생을 담은 공연 <곡예사 근뽕>을 선보인다. 서커스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컨템퍼러리 서커스로는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의 작품 10편을 준비했다. 공연을 보면서 관객이 직접 참여해볼 수도 있는 <원구자들>(코드세시)과 <함!?!>(공간 서커스살롱), 노들섬 곳곳을 이동하며 선보이는 <특별한 안내원&섬세한 미술사>(쇼갱), 비올라 연주와 공중 서커스가 결합한 공연으로 눈을 땔 수 없는 <Pulse:맥>(프로젝트 루미너리)까지 다채롭게 만날 수 있다.

해외 초청 작품으로는 아직 국내에 발표된 적 없는 2편이 준비됐다. 아찔한 핸드 투 핸드 액러배틱과 유쾌한 음악 공연을 한 번에 감상할 수 있는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진지&에베르트안 Zinzi & Evertjan), 휠체어 무용수와 비장애 무용수가 공중에서 펼치는 경이로운 서커스를 감상할 수 있는 <우리 사이의 공기>(클로에 로프터스&로드니 벨 Chloe Loftus & Rodney Bell)다.

마지막으로 올해 축제에서는 처음으로 제작공연을 선보인다. 신작 <옛,다!>는 이번 축제의 주제이기도 한 전통과 현재의 만남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과거의 재주인 줄타기와 현재의 재주 에어리얼 실크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담았다. 이번 공연은 대한민국 대표 여성 어름사니 서주향과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재주상단', 그리고 컨템퍼러리 서커스 단체인 '공연창작집단 사람' 세 팀이 의기투합해 만든 작품이다.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축제 현장에는 서커스 공연 외에도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할 예정이다. 먼저 노들갤러리 2에서 진행되는 이정윤 작가의 전시 <일상의 서커스>에 가면 서커스 모자를 쓴 거대한 코끼리와 알록달록한 선인장 공기 조형물을 만날 수 있다. 작가는 반복되는 일상과 꿈꾸는 이상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 잡는 우리의 모습을 서커스에 빗대 표현했다. 다채로운 색깔을 가진 여러 형식의 작품으로 구성된 전시를 통해 마치 동화 속 환상의 나라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또 공연으로만 보던 서커스를 직접 느껴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매해 축제마다 어린이들의 뜨거운 사랑을 독차지한 '서커스 예술놀이터'가 올해도 준비됐다. 예술놀이터에서는 접시돌리기, 장대타기, 디아블로 등 평소에는 쉽게 즐기지 못하는 서커스 동작을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또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함께 배우는 서커스 체조', 아티스트 진지&에베르트안이 직접 운영하는 체험 워크숍도 있다. 이 밖에도 퍼레이드, 꼬마기차, 플라마켓, 포토존 등 여러 부대 프로그램을 노들섬 전역에서 즐길 수 있다.

누군가에게 서커스는 '태양의 서커스'처럼 화려한 쇼의 경지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동춘 서커스'로 기억하는 옛 시절의 추억일 수도 있다. 또 누구는 카다리 피어로 혹은 알록달록한 서커스 텐트를 떠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서커스는 모두에게 다른 모습으로 존재한다. 2024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은 축제를 다녀간 이들이 서커스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추억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란다. 나들이 가기 좋은 5월의 봄날, 노들섬에서 서커스의 모든 것을 만나보자!

당신의 눈을 사로잡을 서커스기예 7

단숨에 눈을 휘둥그레지게 하는 서커스지만 자세히, 오래 바라볼수록 더욱 아름답다.

“자세히 보아야/예쁘다/오래 보아야/사랑스럽다/너도 그렇다.” 한동안 광화문광장 건물 외벽에 걸려 있던 나태주 시인의 시 ‘폴꽃·1’의 시구는 어떤 대상을 정성스럽고 면밀하게 바라볼수록 그것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은유한다. 이는 비단 폴꽃처럼 작고 사소한 것에 국한하는 건 아니다. 서커스는 화려한 외양과 아주 짧은 찰나에 고도의 기술이 펼쳐지는 까닭에 관객들이 서커스를 자세히, 오래 바라볼 기회가 많지 않고, 서커스에 대한 정보 또한 제한적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의 거리예술축제와 서울서커스페스티벌 등을 통해 여러 서커스 작품이 발표되면서 ‘서커스’로 통칭하는 장르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기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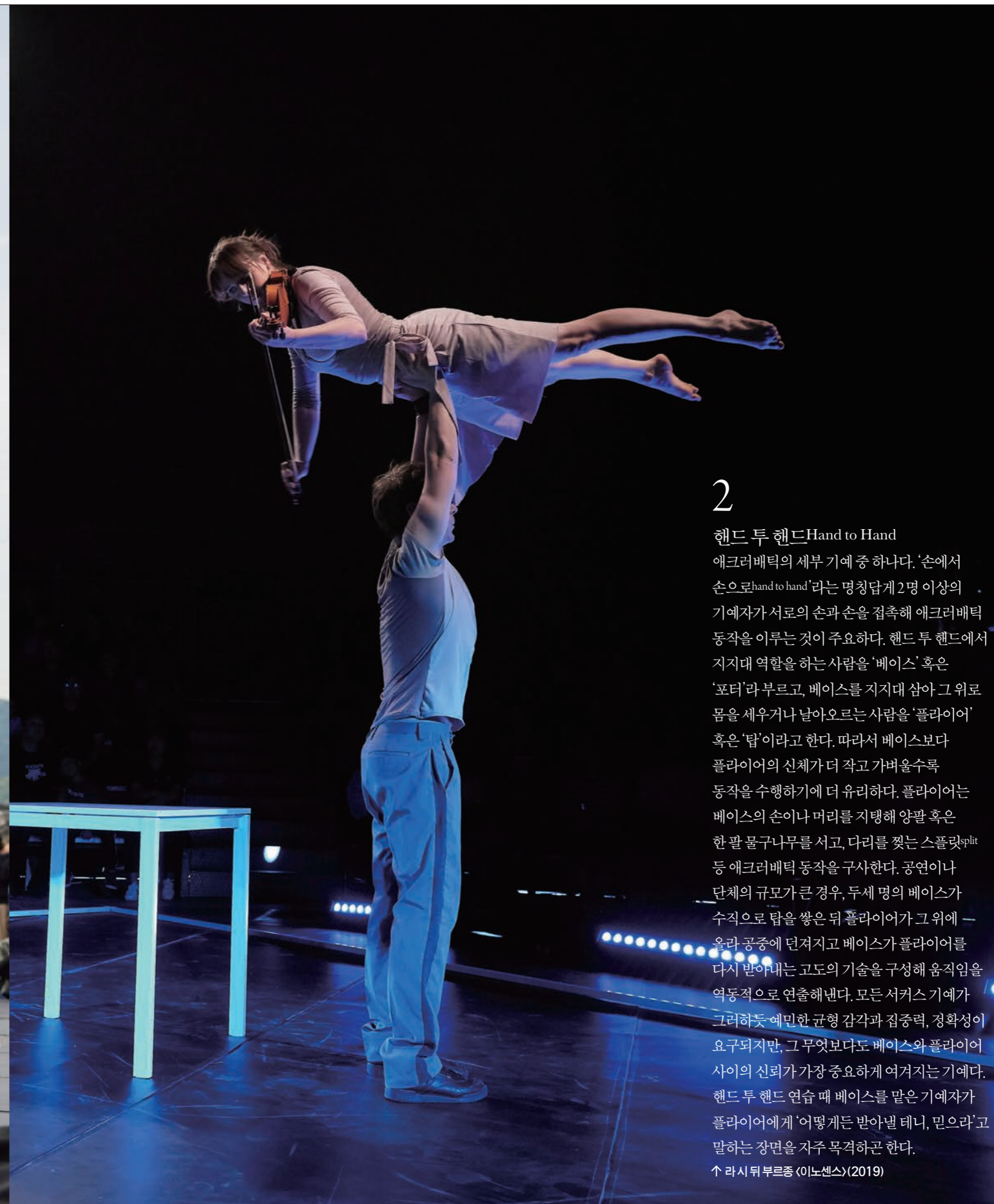
‘서커스’는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에 말을 타고 전차 경주를 벌이던 원형 경기장에서 비롯된 용어다. 당시 기마사들은 전차 경주에 따른 함을 느끼는 관객의 이목을 끌기 위해 달리는 말 위에 서는 등 애크러배틱을 접목한 기마 기술을 선보였는데, 이것이 서양 서커스의 기원이 되었다. 국내에서는 『삼국사기』를 비롯한 문헌에서 말 타는 놀이를 지칭하는 ‘마기馬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고, 이후 ‘곡예曲藝’나 ‘연희演戲’라는 이름 아래 줄타기나 장대타기 등 서커스 기예가 발전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서커스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관중의 시선을 사로잡고 유희하기 위해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기술에 다양한 도구를 접목하며 발전해왔다. 그렇다면, 현대 서커스에는 어떤 기예가 있으며, 각 기예의 특징은 무엇일까? 서커스를 자세히, 오래 바라보기 위해 서커스의 대표적인 기예에 대해 알아보자.

1

애크러배틱Acrobatics

모든 서커스 기예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동작으로는 다리 찢기, 점프, 앞구르기, 뒤구르기, 옆돌기, 물구나무서기, 공중 돌기 등이 있다. 이런 기초 단위의 동작은 다양한 조합을 이루면서 변형된다. 민첩성과 유연성, 균형 감각을 필요로 하며, 무엇보다 자기 신체 조절 능력이 중요하다. 애크러배틱 동작은 어떤 서커스 기예 도구 위에서 수행되느냐 혹은 어떤 신체를 활용하거나 몇 명의 퍼포머가 함께하느냐에 따라 폭넓게 확장될 수 있다.

→ 뽕상 바람 (해질녘)(2023)



2

핸드 투 핸드Hand to Hand

애크러배틱의 세부 기예 중 하나다. ‘손에서 손으로hand to hand’라는 명칭답게 2명 이상의 기예자가 서로의 손과 손을 접촉해 애크러배틱 동작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핸드 투 핸드에서 지지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베이스’ 혹은 ‘포터’라 부르고, 베이스를 지지대 삼아 그 위로 몸을 세우거나 날아오르는 사람을 ‘플라이어’ 혹은 ‘탑’이라고 한다. 따라서 베이스보다 플라이어의 신체가 더 작고 가벼울수록 동작을 수행하기에 더 유리하다. 플라이어는 베이스의 손이나 머리를 지탱해 양팔 혹은 한 팔 물구나무를 서고, 다리를 찢는 스플릿split 등 애크러배틱 동작을 구사한다. 공연이나 단체의 규모가 큰 경우, 두세 명의 베이스가 수직으로 탑을 쌓은 뒤 플라이어가 그 위에 올라 공중에 던져지고 베이스가 플라이어를 다시 받아내는 고도의 기술을 구성해 움직임 역동적으로 연출해낸다. 모든 서커스 기예가 그러하듯 예민한 균형 감각과 집중력, 정확성이 요구되지만, 그 무엇보다도 베이스와 플라이어 사이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예다. 핸드 투 핸드 연습 때 베이스를 맡은 기예자가 플라이어에게 ‘어떻게든 받아낼 테니, 믿으라’고 말하는 장면을 자주 목격하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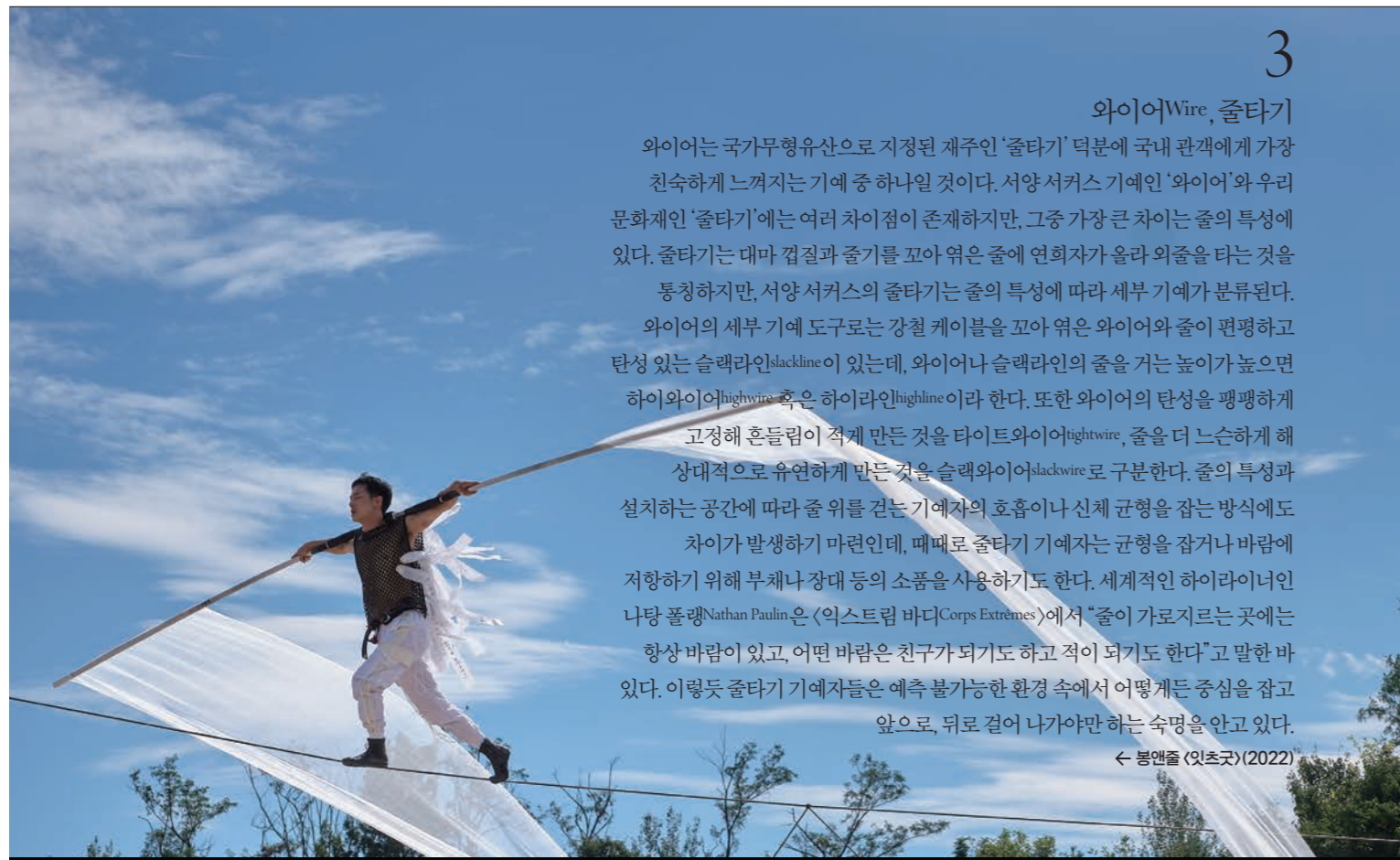
↑ 라시 뒤부르쵸 (이노센스)(2019)

3

와이어Wire, 줄타기

와이어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재주인 '줄타기' 덕분에 국내 관객에게 가장 친숙하게 느껴지는 기예 중 하나일 것이다. 서양 서커스 기예인 '와이어'와 우리 문화재인 '줄타기'에는 여러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그중 가장 큰 차이는 줄의 특성에 있다. 줄타기는 대마 껍질과 줄기를 꼬아 엮은 줄에 연희자가 올라 외줄을 타는 것을 통칭하지만, 서양 서커스의 줄타기는 줄의 특성에 따라 세부 기예가 분류된다. 와이어의 세부 기예 도구로는 강철 케이블을 꼬아 엮은 와이어와 줄이 편평하고 탄성 있는 슬랙라인slackline이 있는데, 와이어나 슬랙라인의 줄을 거는 높이가 높으면 하이와이어highwire 혹은 하이라인highline이라 한다. 또한 와이어의 탄성을 팽팽하게 고정해 흔들림이 적게 만든 것을 타이트와이어tightwire, 줄을 더 느슨하게 해서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만든 것을 슬랙와이어slackwire로 구분한다. 줄의 특성과 설치하는 공간에 따라 줄 위를 걷는 기예자의 호흡이나 신체 균형을 잡는 방식에도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때때로 줄타기 기예자는 균형을 잡거나 바람에 저항하기 위해 부채나 장대 등의 소품을 사용하기도 한다. 세계적인 하이라이너인 나탕 폴랭Nathan Paulin은 <익스트림 바다Corps Extrêmes>에서 "줄이 가로지르는 곳에는 항상 바람이 있고, 어떤 바람은 친구가 되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렇듯 줄타기 기예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중심을 잡고 앞으로, 뒤로 걸어 나가야만 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 봉앤줄 <잇초곳>(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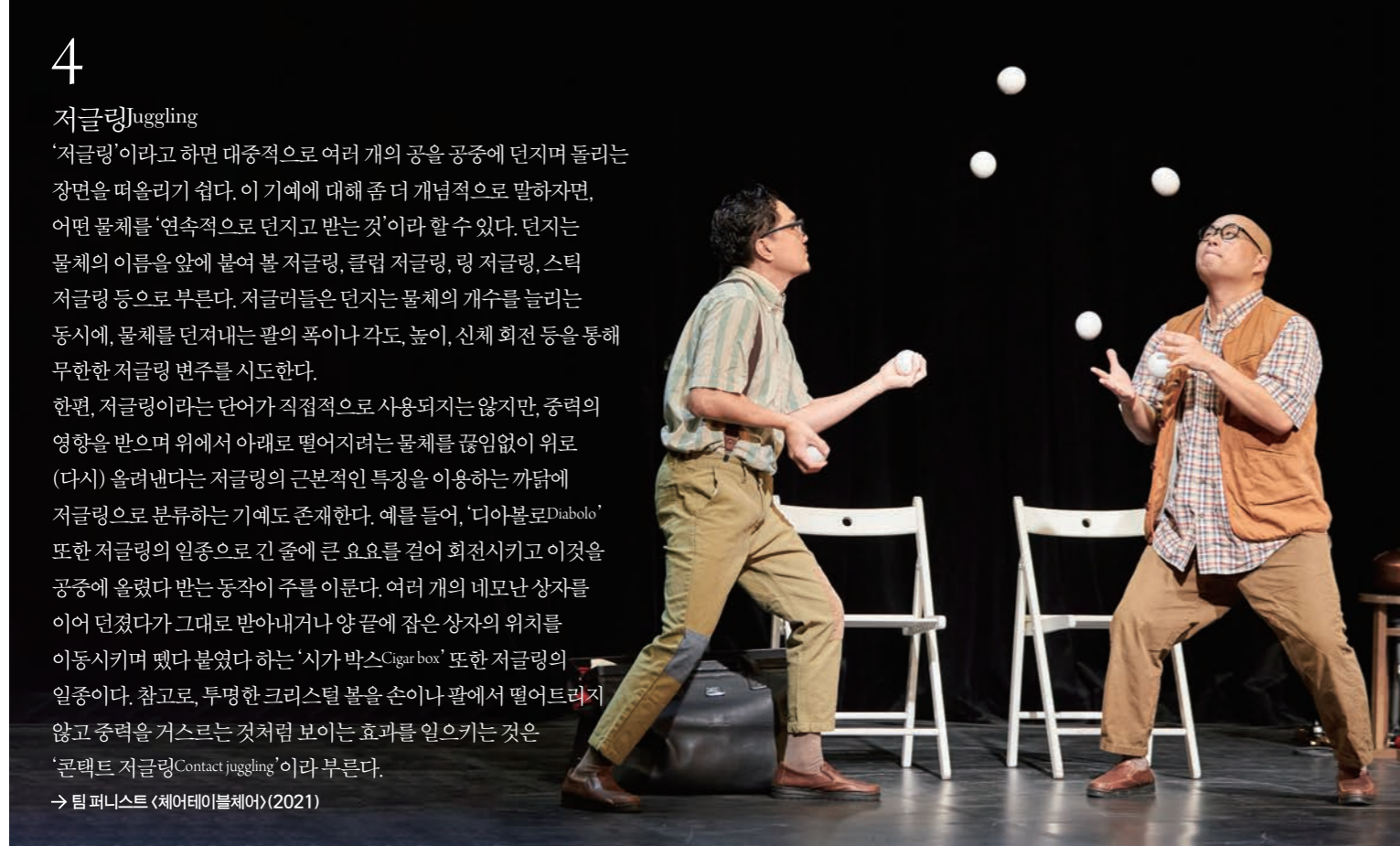


4

저글링Juggling

'저글링'이라고 하면 대중적으로 여러 개의 공을 공중에 던지며 돌리는 장면을 떠올리기 쉽다. 이 기예에 대해 좀 더 개념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물체를 '연속적으로 던지고 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던지는 물체의 이름을 앞에 붙여 볼 저글링, 클럽 저글링, 링 저글링, 스틱 저글링 등으로 부른다. 저글러들은 던지는 물체의 개수를 늘리는 동시에, 물체를 던져내는 팔의 폭이나 각도, 높이, 신체 회전 등을 통해 무한한 저글링 변주를 시도한다. 한편, 저글링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중력의 영향을 받으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려는 물체를 끊임없이 위로 (다시) 올려낸다는 저글링의 근본적인 특징을 이용하는 까닭에 저글링으로 분류하는 기예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디아볼로Diabolo' 또한 저글링의 일종으로 긴 줄에 큰 요소를 걸어 회전시키고 이것을 공중에 올렸다 받는 동작이 주를 이룬다. 여러 개의 네모난 상자를 이어 던졌다가 그대로 받아내거나 양 끝에 잡은 상자의 위치를 이동시키며 땀다 붙었다 하는 '시가 박스Cigar box' 또한 저글링의 일종이다. 참고로, 투명한 크리스털 볼을 손이나 팔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콘택트 저글링Contact juggling'이라 부른다.

→ 팀 퍼니스트 <체어테이블체어>(2021)



5

에어리얼Aerial

문자 그대로 '공중 곡예'를 뜻한다. 바닥으로부터 (그게 몇 센티미터든, 몇 미터든) 떨어져 공중 공간을 무대로 사용하는 모든 서커스 기예는 '에어리얼'로 분류되며, 공중에 매달아 사용하는 기예 도구에 따라 에어리얼 로프, 에어리얼 스트랩, 에어리얼 후프, 에어리얼 실크, 에어리얼 트라페즈 등으로 나뉜다. 도구를 공중에 높이 매달기 위해 크레인을 동원하기도 하고, 3미터 넘는 높이의 첩근 구조물을 설치해 도구를 매달기도 한다. 로프나 스트랩, 실크(천)처럼 공중에 물체를 길게 늘어뜨리는 에어리얼의 경우, 해당 기예 도구를 몸통이나 팔다리 등 신체 일부에 감았다가 풀어내며 다양한 매듭을 만들어간다. 도구에 몸을 매달아야 하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악력과 전완근의 힘을 강하게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로프나 스트랩처럼 줄을 늘어뜨리는 기예에서는 회전력을 사용하는 동작이 많고, 천을 두 줄 늘어뜨린 에어리얼 실크나 줄이 고리 모양으로 된 에어리얼 슬링의 경우 기예자가 양다리를 유연하게 세로나 가로로 180도 이상으로 벌려 스플릿 자세로 매달리는 동작을 자주 선보인다. 반면, 후프의 경우 줄이나 천에 비해 물성이 딱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적인 움직임을 더욱 크게 사용한다. 길게 늘어뜨린 두 개의 줄 끝에 수평 막대를 매달아 반동을 이용해 앞뒤로 흔드는 원리를 사용하는 공중그네 또한 대표적인 에어리얼 기예지만, 이쉽게도 공간 확보나 연습의 어려움 등으로 국내 서커스 신scene에서는 아직 만나보기 어렵다.

↑ 프로젝트 푸미너리 <Pulse:맥>(2021)



6

차이니스 폴 Chinese Pole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에서 유래한 기예로, 직경 5~8센티미터에 높이 3~9미터 정도의 장대를 수직으로 세워 장대 위를 오르고, 회전하고, 미끄러지고, 떨어지는 일련의 동작을 펼쳐 보인다. 폴 댄스에서 사용하는 폴은 금속으로 돼 있어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 맨살을 폴에 접촉하지만, 차이니스 폴은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 쇠막대 표면이 고무 합성 소재인 네오프렌이나 생고무로 감싸져 있다. 그 때문에 차이니스 폴 기예자들은 마찰로 인한 찰과상이나 화상을 피하고자 최대한 맨살 노출이 적은 의상을 선택한다. 여러 명의 기예자가 하나의 폴에 오르내릴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폴을 설치해 단체극을 구성하기도 한다.

← 갈라피아 서커스 <사탕의 숨결>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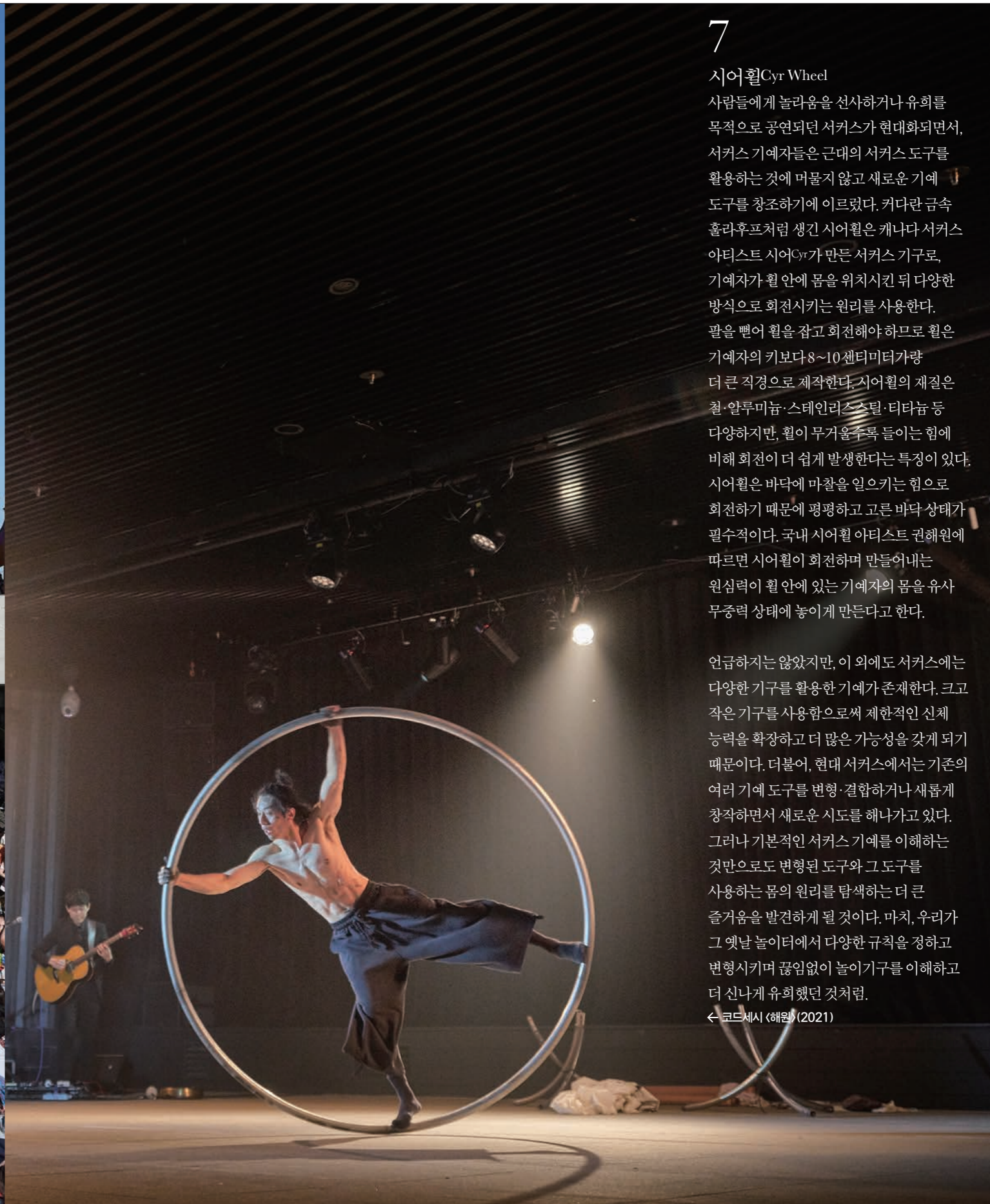
7

시어휠 Cyr Wheel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거나 유희를 목적으로 공연되던 서커스가 현대화되면서, 서커스 기예자들은 근대의 서커스 도구를 활용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기예 도구를 창조하기에 이르렀다. 커다란 금속 홀라후프처럼 생긴 시어휠은 캐나다 서커스 아티스트 시어 Cyr가 만든 서커스 기구로, 기예자가 휠 안에 몸을 위치시킨 뒤 다양한 방식으로 회전시키는 원리를 사용한다. 팔을 뻗어 휠을 잡고 회전해야 하므로 휠은 기예자의 키보다 8~10센티미터가량 더 큰 직경으로 제작한다. 시어휠의 재질은 철·알루미늄·스테인리스스틸·티타늄 등 다양하지만, 휠이 무거울수록 들이는 힘에 비해 회전이 더 쉽게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시어휠은 바닥에 마찰을 일으키는 힘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평평하고 고른 바닥 상태가 필수적이다. 국내 시어휠 아티스트 권해원에 따르면 시어휠이 회전하며 만들어내는 원심력이 휠 안에 있는 기예자의 몸을 유사 무중력 상태에 놓이게 만든다고 한다.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외에도 서커스에는 다양한 기구를 활용한 기예가 존재한다. 크고 작은 기구를 사용함으로써 제한적인 신체 능력을 확장하고 더 많은 가능성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현대 서커스에서는 기존의 여러 기예 도구를 변형·결합하거나 새롭게 창작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서커스 기예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변형된 도구와 그 도구를 사용하는 몸의 원리를 탐색하는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마치, 우리가 그 옛날 놀이터에서 다양한 규칙을 정하고 변형시키며 끊임없이 놀이기구를 이해하고 더 신나게 유희했던 것처럼.

← 코드세시 <해원> (2021)



사람이 없으면 제주도 없다

도깨비들이 노들섬의 노을을
무대 삼아 한바탕 난장을
예고했다. 당신이 거기 있고
내가 여기 있어
비로소 완성되는 우리의 제주.
서울서커스페스티벌
제작공연 <옛,다!>의 제주 많은
도깨비들을 만났다.



→ 왼쪽부터 엄한실, 오세원, 홍석민, 이학인, 서석배, 서상현, 서주향, 엄예은

서울서커스페스티벌에서 선보일 제작공연 <옛,다!>를 위해 서로 다른 신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모였어요. 각자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상현 창작집단 사람은 거대한 사회 속에서 개인의 심상에 집중해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작업을 추구하는 공연예술 팀입니다. 연출가 서상현과 조연출가 겸 퍼포머 엄예은으로 구성돼 있고요. 지금까지 서커스와 신체 움직임 중심의 목표 의식과 맞닿은 직접적인 행위를 실행하는 다양한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저는 이번 공연에서 총연출을 맡았습니다.



서주향 저는 안정에서 줄을 타는 어름사니 서주향이라고 합니다. '어름사니'라는 말이 생소한분도 계실 텐데요. 공중에서 부리는 재주가 얼음판을 걷듯 아슬아슬하다고 해서 붙인 '어름'에 인간과 신의 중간을 뜻하는 '사니'를 더해 줄타기꾼을 일컫는 남사당 용어입니다. 그동안 전통 기예 영역에서만 작업을 이어왔는데, 서커스나 마살아츠 트리킹(Martial Arts Tricking)처럼 다양한 분야의 기예팀과 함께하게 돼 무척 설렙니다.



이학인 재주상단은 옛 '보부상단'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붓짐을 메고 발이 닿는 대로 떠났던 보부상처럼, '재주'를 싸매고 다니며 관객과 만나고 있습니다. 국악기를 시작으로 양악·서커스·연극·마임 등 다양한 복합 장르를 추구하며 전통과 현대가 시너지를 이루는 작품을 제작해왔고요. 이번 공연은 아빠개비를 맡은 저 이학인과 음악과 믹싱을 담당하는 하와이개비 오세원, 다양한 오브제를 이용해

퍼포먼스를 선보일 진개비 홍석민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엄예은 퍼포머와 서주향 어름사니가 하늘을 채우는 도깨비라면, 저희는 땅에서 음악과 재주를 선보이는 도깨비를 맡았습니다.



서석배 저와 엄한설 퍼포머는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첫 만남입니다. 그래서 아직 역할이 정해지진 않았어요. 둘 다 여러 무술의 발차기, 기계체조의 공중돌기와 비틀기, 다양한 무용 동작을 접목한 마살아츠 트리킹 분야에서 퍼포머로 활동하고 있어서 아마 무대를 날아다니며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도깨비가 되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도깨비와 서커스, 줄타기와 무술 그리고 하와이라니 키위드가 예사롭지 않네요.

서상현 '2024년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을 주제로 하는 극을 제작해달라'는 단 한 줄에서 작품 구상을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떠오른 키워드는 '연결'이었습니다. 전통 기예와 현대 기예,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서커스에 대한 개념과 재주를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고민했죠. 도깨비들이 저마다 다른 재주를 펼치면서 다양한 요소들을 연결하기 위해 시도하고, 노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연결로 시작했지만, 나아가 미래의 재주에 대한 연결을 생각했고,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없으면 재주도 없다'는 방향에 도달했어요. 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 중 누구 하나만 없어도 공연은 존재하지 않니까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매개체는 결국 사람이 아닐까요? 과거와 현재, 미래의 기예를 잇기 위해 만드는 사람도 즐겁게, 보는 이들도 즐거운 극을 만들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함께 즐기고 모여야 재주가 있다'는 주제를 창작 과정에 녹여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서로 다른 기예의 퍼포머가 수직과 수평 구조로 저마다 다른 공간을 차지하고 넘나든다는 점이

독특하게 느껴지네요. 엄예은 노들섬이라는 공간 자체가 트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품의 부피감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땅개비에서 하늘개비, 줄개비 그리고 무대를 확확 날아다니는 획개비까지 저마다 위아래, 양옆을 총횡무진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교차할 거예요. 눈 돌 곳이 많은 작품이라 보는 관객도 재미있겠지만, 저희도 만드는 과정에서 의견을 주고받으며 많이 배웠어요. 공간을 넘나드는 것도 재미있지만 저마다 장리적인 변화를 추구해서 더욱 흥미로운 작품이 됐습니다. 저는 하늘 공간을 맡았는데요. 공중 서커스 하면 떠오르는 아름답고 우아한 동작을 넘어 전통 기예와 접목한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서주향 저는 이번 무대에서 처음으로 힙합 음악에 맞춰 줄을 타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퇴폐적이기도 하고 장난기 많은, 기존에는 보여드린 적 없는 새로운 기예를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평소에는 2.3미터 정도 높이에서 줄을 타는데, 서상현 연출님이 이번 작품을 제안하며 3미터에서 줄을 타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자체도 새로운 도전이었는데 저보다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분이 계시어서 마음의 부담을 조금 덜었습니다. 전통 줄타기와 서커스 퍼포먼스의 넘나들듯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엄한설 저희 획개비는 무대와 객석 사이를 넘나들 예정입니다. 재주 넘는 원숭이랄까요? 열린 공간인 만큼 관객과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퍼포머와 관객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객석과 무대를 오가며 재미있게 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재주도 없다'는 말씀도 인상적이에요.

서상현 작품을 준비하면서 모두에게 도깨비라는

정체성을 부여한 건 캐릭터가 가진 유쾌함도 있지만, 시간을 거스르는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도깨비는 나이를 먹지 않는 요괴잖아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존재하죠. 인간의 세월에 간하지 않는, 도깨비는 어떻게 존재하는 걸까요? 사람들에게 갖곳은 장난을 치면서 불쑥불쑥 세상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도깨비가 재주꾼과 참 닮은 것 같아요. 재주꾼도 도깨비처럼 사람들의 관심과 박수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했고요.

여러 팀이 만나서 작업하는 만큼 새로운 발견의 순간이 많았다고요.



홍석민 각자의 분야에서 매진해온 재주를 함께 모인 자리에서 보여주고 보는 과정 자체가 저희에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재주상단은 기존에도 전통과 예술의 융합을 시도하는 팀이지만, 이번 작업에서 저희가 미처 보지 못한 그 너머를 보는 경험이었어요. 뭔가 막혔던 혈관이 뚫렸다고 할까요.



오세원 음악 면에서도 기존에 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향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이번 공연 이후의 작업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주향 연출과 퍼포머들 모두 서로를 지지하고 잘 받아줬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새로운 발전을 이루기 힘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하고 알게 된 부분이 많아요. 그동안 제가 했던 줄타기가 재담을 나누는 비교적 단순한 구성이었다면 극을 이끄는 방식이나 의상이나

음악, 무대 장치와 같이 기술에 집중해서 더 잘 보여드릴 수 있는 요소들에 관해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엄예은 각자의 신에서 오래 작업한 분들이라 본인이 고수하던 원칙을 내세울 수도 있는데, 여기 모인 분들은 '나는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고집이 없었어요. 아마 그게 저희 공연 팀의 특징이 아닐까 합니다. 각자 스스럼없이 얘기를 주고받고, 누군가 제안을 하면 그걸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낼 수도 있고요.



서상현 처음 모든 팀이 모였을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심사 부탁을 드렸어요. 하나의 결과물을 뽑아내기 위해 모였지만, 저를 포함해 각자 나름의 시도나 도전을 하면서 나름의 성취를 맛보길 바랐거든요. 작품을 올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재미있거나 새로운 무언가를 알게 되고, 기꺼이 한번 해 볼 수 있는 힘이 생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될까?' 싶어도 일단 가져와달라고 말씀드리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보시는 분들도 만족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옛,다!>라는 무대에 거는 각자의 기대감도 다를 것 같아요.

이학인 많은 단체가 그렇듯이 저희 팀도 코로나19로 관객과 만나기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도 무대를 잃었지만, 보시는 분들도 예술을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악이면 국악, 현대극이면 현대극, 이렇게 규격에 맞는 공연예술을 주로 관람하셨다면, 이번 무대가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자리이길 바라요. 무대가 사라진 동안에도 아티스트들이 거리 곳곳에서 관객과 만나고자 노력한 시간이 결실을 보고, 관객에게 전통과 현대의 융합 예술이 이 정도까지 성장했다는 인식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한설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마음껏 선보일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팀이 있구나, 서울에서 이런 시도를 펼치는 사람들이 있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시도와 색깔로 관객을 맞이하기 위해 탐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요.



엄예은 저는 서커스 같은 공연예술이 일반 관객에게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경계에 놓이는 걸 참 좋아하고요. 이 경계의 백미는 공연을 보는 순간에도 유효하지만, 극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빛을 받습니다. 공연을 보고 돌아온 일상에서 문득 떠오르게 만들고, 크든 작든 삶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 일. 그게 이 공연의 목표이자 도전이니 이 새로운 감각을 기분 좋게 느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이 올해로 7회를 맞이합니다. 공연을 준비하며 바라는 점이 있나요?

엄예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차별화된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조금 더 홍보가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주향 다양한 퍼포머와 작업하며 서로의 분야에 대해 인식을 깨고 새롭게 발견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이번 공연이 관객에게도 전통과 현대 기예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끌어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전통이라고 하면 '옛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기보다는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구요.

서석배 흔히 축제하면 불꽃축제를 떠올리잖아요. 풍부한 지원과 플레이어의 즐거운 창작 활동이 어우러진다면, 거리예술이 시민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표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양한 아티스트와 작품을 발굴하는 등용문이 되면 좋겠고요. 시민이 기대하는 축제, 예술로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서울의 축제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전시로 만나는 '일상의 서커스'

예상치 못한 공간에 등장한 거대한 코끼리. 타인의 이상이 씌워진 하이힐을 신고, 마치 서커스 하듯 삶의 균형을 잡으려는 모습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발견한다.

이정윤은 반복되는 일상과 꿈꾸는 이상의 경계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우리 삶의 이야기를 대형 공기 조형물인 '코끼리'와 '여행하는 선인장'을 통해 동화적으로 표현한다. 작가의 작업에 자주 등장하는 코끼리는 인간 사회처럼 함께 무리 지어 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모성애가 강한 동물의 하나다. 몸이 클 뿐만 아니라 무게도 가장 무거운 동물 중 하나인 코끼리는 작가의 작품에서 하이힐을 신은 모습으로 등장해 마치 자기 몸조차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이슬이슬함을 드러낸다. 이는 불안한 삶 속에서도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고, 행복을 잃지 않겠다는 긍정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작가 이정윤은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 Pratt Institute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드로잉·조각·영상·유리 블로잉까지 다양한 매체로 현대인의 삶을 은유하는 작업을 펼쳐오고 있다. 한국·일본·미국 등에서 20여 회의 초대 개인전을 개최했고, 200여 회 가까운 국내외 단체 기획전에 초대됐다. 현재 열린 작업실 붐빌 스튜디오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 이정윤, <Trunk Project>, 2011, 공기 조형물, 가변 설치





↑ 이정운, <Sleepless Cacti>, 2018,
장지 위에 혼합재료 드로잉, 36×24cm

→ 이정운, <On The Edge, 경계에 서서>,
2011, 공기 조형물, 기변 설치



전시 <일상의 서커스> 관람 안내

4월 30일부터 5월 5일,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노들섬 노들갤러리2, 노들스퀘어

ASSOCIATED

예술가의 진심

김준수의 소리는 흐르는 물처럼, 때로는 파도처럼

예술인 아카이브

김래혁

정아름

페이퍼로그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양천팀 이대욱

인사이드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공동창작워크숍 결과 전시

서울시민예술학교 봄 시즌

트렌드

아프리카 창조도시의 미래 ❶

김준수의
소리는

흐르는
물처럼,

때로는
파도처럼



지난달, 김준수는 여든 살의 노인이 되어 물이 차오른 <리어> 무대에 올랐다. 물과 같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려는 리어의 마음을 가득 담아, 그는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래했다. “상선(上善)은 약수(弱水)일러니, 만물을 이로우 하되 다투지 아니하고 모두가 저어하난 낮은 곳에 처(處)하노라.” 리어의 세계에서 물은 깊어졌다가 땅을 뒤덮었다가 다시 알아지기를 반복하며 계속 흘렀다. 몇 개월마다 계속 다른 인물이 되어온 김준수의 가장 최근의 삶은 ‘리어’였고, 그 세계에서 천천히 걸어 나온 지금, 그는 물처럼 계속 흐르며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한다.

<리어>의 재공연을 막 끝냈습니다. 강렬한 서사였고, 몰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공연을 마친 소감이 어떠세요?

꿈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제까지만 해도 <리어>의 세계에 있었는데, 마지막 공연 끝나고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니 마음이 허하기도, 이제야 긴장이 풀리기도 했어요. ‘아, 이제 정말 공연이 끝났구나’ 싶었고요. 그 하루 사이의 온도 차가 진짜 크다는 걸 실감했고 그게 제가 연습과 공연 기간에 쏟아부은 에너지에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서른 즈음에 ‘리어’라는 인물을 깊게 만났습니다. 리어가 지금의 김준수에게 알려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고, 그 선택에 대해 깊게 고민할 때가 많잖아요. 어떤 선택을 하든 고심해서 내린 결정이 후회로 남지 않게, 또 미련도 남지 않게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하게 됐어요. 물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요. 리어도 긴 인생을 살아온 노인이지만 그 또한 여전히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저 한 인간이니까요. 처음 <리어>를 만났을 땐 내가 이 인물을 어떻게 바라볼지 고심했는데, 재공연을 마친 지금은 오히려 제게 여러 생각을 건네주는, 귀한 작품으로 느껴져요.

극의 잔상이 워낙 강해서인지 그 이야기를 곱씹으며 흐르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게 됩니다. “물이어, 리어여” 하고 노래하는 대목도 뇌리에 계속 맴돌고요.
<리어>에서 물은 서사를 관통하며 흐르는 중요한 요소예요. 물은 흐르기도, 고여 있기도, 무대 위



움직임에 따라 요동치기도 하고, 다시 잔잔하게 그 자리에 머무르기도 하죠. <리어>와 물을 연결한 배삼식 작가님의 생각에 정말 탄복했어요. 그리고 저도 물처럼 잘 흘러가고 싶다고 생각했구요. 물은 거침없이,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순탄하게 흐르기도 하지만 또 언젠가는 거센 파도를 만나 그 파도와 하나가 되죠. 물의 흐름은 어찌 보면 인생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근 반년간 다양한 인물이 되어 무대에 올랐습니다. 3월의 ‘리어’에 앞서 2월에는 남성 창극 <살로메>에서 ‘살로메’를, 지난해 11월에는 국립창극단 <패왕별희> 재공연에서 다시 ‘우희’를 맡았죠. 매번 다른 역할을 맡는 건 공연하는 사람의 숙명이겠지만, 많은 인물의 변화 폭이 상당히

큰 편으로 보이네요.

움직임, 대사의 톤, 연기 등 연출가의 디렉션과 작품에 따라 계속 변화해야 한다는 점이 배우로서 귀한 경험인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이든 쉽진 않고, <패왕별희> 역시 그랬어요. 특히 우희를 연기할 때는 굉장히 정제된 움직임 속에서 절제된 표현을 해야 했는데, 내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고 어떤 틀 안에서의 가장 슬픈 것, 복합적인 감정을 압축한 무언가를 표현해야 했거든요. 소리로 들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희가 친 검의 움직임에 모든 슬픔이 담기는 것처럼 움직여야 했어요. 그런 복합적인 표현이 가장 어려웠어요.

우희가 절제하는 인물이라면, 살로메와 리어는 발산해야 하는 인물이었어요.

<살로메>를 할 때는 너무 폭발하지 않도록, 담백하게 하라는 연출님과 작가님의 디렉션이 있었어요. 보통 소리꾼들은 노래 하나에 모든 감정을 싣고 에너지를 뽐내거든요. 그래서 살로메를 연기하면서 담백하게 뱉어내는 게 정말 어려운 부분 중 하나였어요. 살로메는 감정 기복이 정말 심한 인물이거든요. 특히 마지막 아리아에서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해야 했어요. 하다보면 저도 막 머리가 하얘지고, 무대에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죠. 리어도 처음에는 맨정신이지만 딸들의 배신과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점점 미쳐가요. 그 감정선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엔 완전히 미쳐서 무대 위에서 혼자 긴 독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어요. 그래서 연기의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한 고민이 정말 컸고요. 집에 가면 자기 전에 연습 녹음본을 꺼서 베게 옆에 두고 모니터링하는데, 그러면 도저히 잠들지 못하겠더라고요. (웃음) 내일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하다 보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럴 땐 작품과 무관한 ‘한국의 근현대사’ 같은 유튜브 영상을 일부러 켜놓고 어떻게든 잠을 자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공연에 대한 생각을 쉬어보려고 애쓰셨군요. 워낙 캐릭터가 강렬한 데다 익숙하지 않은 인물들이라 고민이 끝없이 이어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나름대로 비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결국에는 제가 만난 모든 작품, 모든 역할 중에

수 김준수는 올해 초 <리어>의 주인공으로 분해 인간사의 분노와 회한을 그려냈고, 지난해 <패왕별희> 무대에서는 우희 역을 맡아 소리는 물론 춤까지 소화했다 ©국립극장

쉬운 건 없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춘향가’의 이몽룡처럼, 많이들 익숙하고 소리꾼이 잘 표현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참고할 것도 많고 제 나이에 좀 더 수월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리어·살로메·우희 같은 캐릭터는 조금 다르죠. 소리꾼으로서, 그리고 제 나이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참고할 예를 찾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함께 공연을 만들고 있는 연출님, 작가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저도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인물을 만나려고 했어요. 내가 편안하게 리어를 만나자, 이 할아버지를 만나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의 김준수는 여러 종류의 '고전'을 폭넓게 다루는 소리꾼이 돼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고전으로 불리는 작품에선 완성도 높은 이야기와 더불어 강렬하고도 입체적인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지금 그런 인물들을 밀도 높게 체화하는 과정인 것 같고요. 고전과 그 안의 인물을 만나며 소리꾼 김준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제가 소리를 하면서, 그리고 창극이라는 장르를 하면서 이런 작품들을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그렇지만 만나게 되니, 다양한 생각을 하게 돼요. 판소리 다섯 바탕처럼 세익스피어의 작품을 비롯한 여러 고전도 서사적으로 탄탄하고 높은 완성도를 갖추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단단하게 뿌리내린 작품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작품 자체가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배우들도 그 안에서 계속해서 변화를 시도할 수 있고요. 판소리도 그런 것 같아요. 몇백 년 전부터 이어온 우리 소리의 뿌리가 단단하고 깊기 때문에 여러 작품과 만나 흔들리지 않고 다양한 매력을 발산할 수 있고요. 그래서 판소리와 서양의 극이 만날 때, 관객들도 이걸 우리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판소리가 지닌 힘이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소리꾼의 힘 역시 크다고 생각해요.

창극에서 소리꾼이 뿜어내는 에너지와 다양한 매력이 하나로 뭉칠 때 더 큰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관객들도 그걸 강력한 에너지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판소리가 가진 절절함도 있고 한도 있지만, 또 흥도 있잖아요. 즉흥적인 부분도 크고요. 그런 힘을 바탕으로 소리꾼들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는 거죠. 소리를 시작할 때는, 판소리란 다섯 바탕으로 이루어진 장르라고 생각했어요. 소리꾼이 점점 나이를 먹어가며 그 안에 자기 드라마를 담아내는 예술이라고 여긴 거죠. 그런데 창극을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해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는 무엇일지, 소리꾼 입장에서 그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대하게 돼요. 지금의 관객과 소통하며 새로운 작품을 계속 시도하는 중에도 뿌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굳건히 믿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시도를 하든 관객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작품을 바라봐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소리꾼이 복 하나 놓고 지나간 서사를 끌어가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창극에서는 혼자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것을 우리가 함께 만들고 있으니까요.

2013년 국립창극단에 입단해 10년 넘게 수많은 무대에 섰습니다. 중요한 변화의 기점이 된 순간이 있나요?

어느 한순간보다는, 다양한 연출가를 만나면서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던 게 저에게는 가장 큰 복이었던 것 같아요. 한 연출가와 계속 지나간 작업을 해온 게 아니라 작품마다 새로운 예술가를 만났으니까요. 그러면서 다양한 시각에서 작품을 바라보게 되고, 상상력을 키우게 되고,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그런 영감을 준 연출님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국립창극단의 작품뿐 아니라 <풍류대장> 같은 TV 프로그램과 뮤지컬 등 다채로운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시작했을 때 이렇게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리라고 상상했나요. 제 꿈이긴 했어요. 판소리가 좋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리만큼은 계속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제 주변 친구들은 저를 신기한 음악, 예스러운 음악 하는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공감해주는 친구들이 많이 없다는 점에서 분명 외로움도 있었어요. 그러다보니 이 소리를 좀 더 다양하게 풀어낼 수 있는, 저만의 여러 도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대중미디어 출연도 그런 차원이었고요. 앞선 선생님들, 선배님들이 걸은 길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무대 위에서 한복을 입지 않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작은 것이겠지만 저에게는 도전이었거든요. 소리꾼이 가진 이미지와 고정관념,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과감해졌죠.

소리꾼으로서,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하는 것과 더불어, 또 도전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소리꾼으로서 제 작품을 올리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모노극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또 다양한 매체에서 배우로든 소리꾼으로든 계속 활동하고 싶고, 드라마와 영화도 해 보고 싶어요. 도전하고 싶은 영역이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가장 놓지 않고 싶은 것은 근본적인 제 뿌리예요. 창극을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전통 판소리에서의 소리와 창극에서의 소리는 엄연히 달라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엇이 되고 싶냐고 했을 때, 제 답은 소리꾼이에요. 욕심 있는 일은 많지만 제가 놓지 않고 해야 할 일은 소리니까요.

나의 원형인 나의 소리. 그걸 늘 마음에 새기고 되뇌고 있어요.

올해 '춘향가' 완창을 준비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연말에 '춘향가'를 하는 게 목표예요. 최대한 즐기는 마음으로 준비해보려 해요. 전통 소리 무대는 제가 가장 어려운 마음으로 임하는 무대예요. 그 어떤 무대보다도 저를 가장 수련하게 만들고, 가장 겸손하게 만드는 무대이지 않을까 싶어요. 완벽한 무대라는 건 애초에 없겠지만, 특히 전통 소리를 하는 무대에서 아쉬운 점이 남으면 자책을 심하게 하더라고요. 판소리란 세월이 흘러가면서 제 안에서 계속 쌓여가는 것일 텐데 왜 이것만큼은 스스로 좀 더 즐기지 못하는 건지 싶기도 한데요. 그만큼 가볍게 대할 수 없는 것이 판소리여서 그렇겠죠. 무겁고, 중요하고, 그래서 더 잘하고 싶은 무대예요.

여러 무대를 준비하는 가운데, 늘 마음에 품고 있는 한 구절이 있나요?

단가 '사철가'라는 소리가 있어요. '사철가'는 사계절을 인생에 빗대어 무상함을 노래하는 곡인데, 제가 어릴 때 연습하거나 목을 풀 때 항상 부르는 노래예요. 아무 생각 없이 부를 때도 많았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 가사가 조금 남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에 여러 가사가 담겨 있는데, 마지막에 "한 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라는 구절이 있어요. 살면서 겪는 여러 일은 다 잠시 잊고 곁에 있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놀아보자는 거죠. 이게 요즘의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일해야 하지만, 때로는 즐기지 못하는 마음이 힘들게 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일이든 내가 선택한 일이니, 조금 더 길게 무대에 설 수 있는 소리꾼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사철가'를 다시 생각하게 돼요. 물론 <리어>에서도 "상선은 약수일러니"를 비롯해 여러 외당은 구절이 너무 많지만요. (웃음)

마지막으로, 여든의 나이가 된 소리꾼 김준수를 떠올려본다면요.

우선 그때까지 건강하게 소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내일 일도 장담 못 하지만 희망 사항 같은 거죠. 그때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여전히 무대 위에서 소리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네요.

김래혁

무용/현대무용

b.1986

@laehyuk

서울무용센터 2024년 상반기

입주작가

안녕하세요. 저는 군대를 전역한 후 뒤늦게 현대무용을 전공하고 '모던테이블' 무용단에서 8년간(2014-2021) 활동했으며 현재는 윤가연 대표와 함께 '프로젝트 곳곳'이라는 2인 단체로 예술교육 및 공연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프리랜서 무용가로 여러 안무가와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무용수로서는 대학교 4학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외부 공연 활동이 가능했기에 학교 선배 공연이나 여러 안무가 선생님의 작품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제가 열심히 수강한 이론 수업의 교수님께서 김남진 선생님을 소개해주셨거든요. 학교 선배 공연 외에 첫 활동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안무가로서는 2015년부터 여러 페스티벌에 참여하기 시작했지만, 지원금을 받고 공식적인 안무가로 데뷔한 것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17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에 선정되면서 '차세대 열전 2017!'에서 발표한 <My Codon>이라는 작품입니다.

예술가라는 개념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일을 하든 자유롭게 창작 또는 생각하는 사람이 예술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춤을 쳤는데요. 음악을 들으면서 1시간 넘게 움직여도 힘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랄까, 춤을 출 때면 내가 있는 곳이 다른 세상 같고 저도 다른 존재가 된 느낌을 받았어요. 그 느낌은 지금도 춤을 출 때 느껴집니다. 제 예술의 원동력 같은 감각이예요. 춤을 추거나 안무할 때도 저를 비롯한 함께하는 무용수, 그것을 보는 관객도 같은 감각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잘 알려진 작품은 별로 없습디만, 그래도 애정이 가는 작품은 많아요. 첫 번째로 <이상>. 무용수와 플루트 연주자가 동등한 퍼포머가 되어 공연하는 작품인데요. 대부분의 무용 공연에서 연주는 춤의 배경음악을 연주하거나 무대 위 한곳에 머무르며 고정해 있는 점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무용수와 연주자가 극을 함께 이뤄가고 춤도 같이 추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평등한 역할의 개념을 넘어서는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My Codon>. 이 작품은 개인의 행복 요소를 시공간적으로 분해해서 콜라주 방식으로 엮어 만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요소를 각자 다른 표현으로 만들고 대화와 자막, 사소한 소품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이예요. 아쉬웠던 것은 행복에 관한 정의를 뚜렷하게 내리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과거의 행복을 다시 꺼내면서 관객들의 기억 속에 행복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지금의 행복에 관한 관점을 돌아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서울무용센터에서 입주작가로 작업 중인 <face it and set it up>이 있습니다. 지금 리서치 단계인데요. <My Codon>과 조금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과거가 아닌 최근에 인상 깊었던 사건이나 감정(긍정·부정적 모두)에 관해 작업하는 것인데요. 최근 인상 깊은 키워드를 쓰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구체화한 글과 움직임으로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어쩌면 뻔해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 과정의 중간 장치를 거치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무의식이 드러나는 춤을 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실험 정신으로 시도한 작업입니다. 최근에 저는 요즘 무용들의 동작이 비슷해 보이고 소셜미디어로 인해 춤이 '트렌디'해지면서 고유성이 점점 사라지고 어떤 허영을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조금 어설퍼도 자신만의 움직임, 흔한 동작이라도 나만의 고유한 감각, 감정이 담기는 춤을 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시에 춤으로 견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통념을 벗어나 자기 자신답게 살아가기 위한 저만의 방향이기도 하고요.

창작 활동에서 영감을 받는 요소는 종합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책에서 인상 깊게 읽은 내용이 다른 미술 작가의 작품과 겹치고 내 삶, 나를 돌아보는 생각과 이런저런 것들이 만나고 쌓이면서 영감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호암미술관에서 열린 김환기 작가의 전시 <한 점 하늘 김환기>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동서양의 소재가 자유롭게 넘나들며 마그리트René Magritte처럼 초현실적 분위기가 나는 하얀 달항아리 그림이 인상 깊었습니다. 달항아리가 마치 김환기 작가 자신의 '눈' 같아 보였어요. 점점 서구화 되어가던 시절, 그는 자신만의 한국적인 정서를 가진 달항아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자신만의 화풍이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자유롭고 자연적이라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시선의 폭은 더욱 넓어져서, 말년의 <우주>라는 작품에서는 곧 끝날 자신의 삶을 다시 우주와 연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 <이상>(2016)
↓ <My Codon>(2018)



서울무용센터 입주작가로서 <face it and set it up> 작업을 마무리하고, 여기에서 발견한 것을 바탕으로 좀 더 '심플'한 표현과 '심플'한 예술을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심플'이라는 말의 기준이 막연하긴 하지만, 이제 좀 더 직관적이고 제 취향이 마음껏 담긴 작업을 하고 싶다는 의미랄까요. 설명적이거나 시대성을 증명하기 위한 작품이 아니라 바람이 부는 것, 햇살, 공이 굴러가는 모습 등 사소하고 별 가치가 없어 보일지라도 제가 좋아하는 소중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심플하기에 동작이 작고 적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관점이 심플하다는 의미일 것 같아요. 하나의 마음, 하나의 시선을 표현하는 작품이랄까요.



정아롱

시각예술/서양화
b.1981
@arong.c
금천예술공장15기 입주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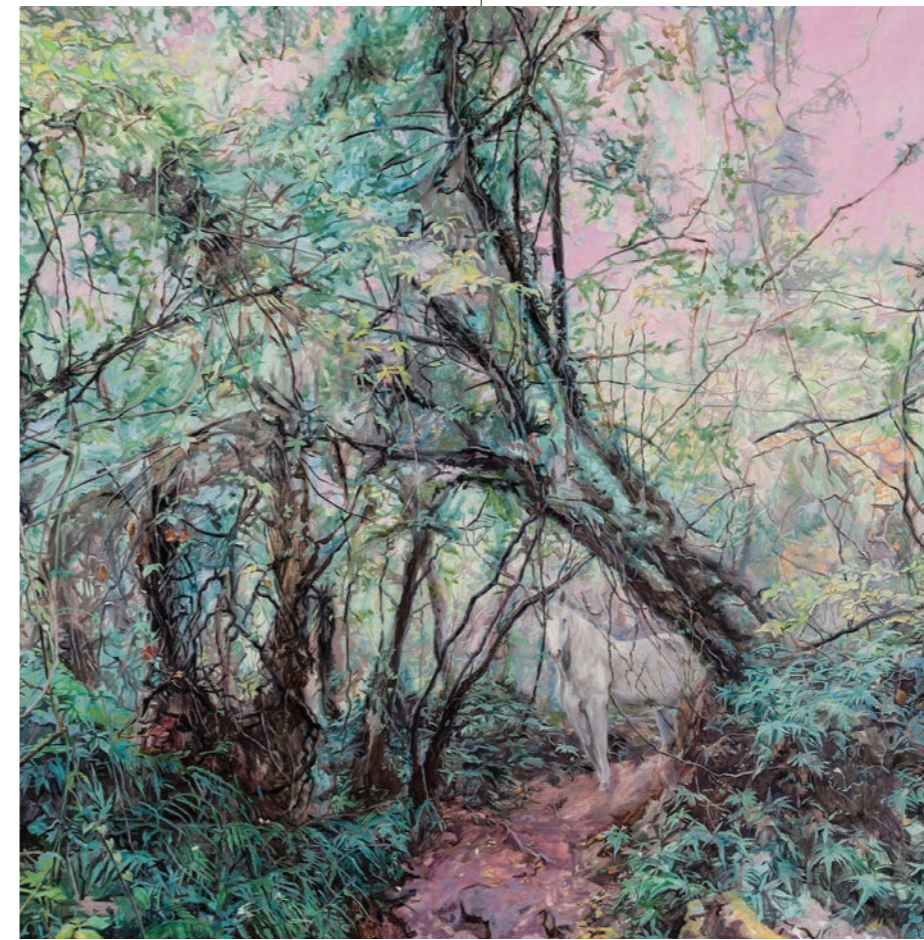
“ 예술 작품에는 미술적인 힘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 방식으로 회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기원을 보면 신비로 가득했던 세계와 인간을 연결해주는 미술적 도구로서 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과학적 지식이 점점 쌓이고 계몽으로 인해 이성과 합리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미술도 점차 미술성으로부터 분리되고 멀어지는 방향으로 전진해왔습니다. 그에 대한 아쉬움이 늘 있어서, 오늘날 예술이 본래 가지고 있던 힘의 위치를 되찾고 그 미술성을 복원시켜주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캔버스에 유화로 그림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서양화의 고전 기법인 에그 템페라^{egg tempera}, 실버 포인트 드로잉^{silver point drawing} 그리고 도자 위에 청화로 그리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신화나 전설, 종교, 문학 등 여러 영역에서 모티프를 차용해

이미지를 만들고 신비롭고 환상적인 세계를 담아 보여줍니다. ”

“ 연필을 손에 질 수 있게 된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늘 그림을 그린 기억이 있습니다. 제법 잘 그리기도 한 것 같고, 그저 혼자 조용히 앉아 그림 그리는 행위를 즐기던 것 같습니다. 또 어린 시절을 이탈리아나 영국·스웨덴·러시아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보냈는데 그곳의 문화유산을 많이 접하면서 성장했고 훗날 자연스레 미술 쪽으로 진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실기실 안에서 조용히 그림만 그리면서 지냈는데요. 대학원 시절 우연히 강의 나오신 선생님이 제 작업을 추천해주셨고, 2005년 인사미술공간에서 열린 전시《열》에 참여하면서 일종의 미술계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

“ 좋은 예술가가 되고 싶다는 하나의 지향점을 두고 많은 시간을 작업실에서 홀로 고립된 채제가 벌여놓은 작업과 씨름하며 보냅니다. 이렇게 혼자 창작에 몰두하면서 보내는 시간 속에서는 특별히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예술가인지, 제 작업이 예술 작품인지 많은 의문을 품습니다. 하지만 작품이 완성된 후 그것을 작업실 바깥으로 가지고 나와 전시·비평·판매 등 과정을 거칠 때, 또는 현재 입주해 있는 금천예술공장과 같은 아티스트 레지던시에 들어와 여러 비평가·큐레이터·작가들과 교류하면서 ‘작가’라는 타이틀을 업고 창작 활동을 할 때, 이렇게 미술계의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좀 더 확실히 스스로를 예술가로 자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 <숲속의 오피리아와 유니콘(Ophelia and a Unicorn in the Woods)>, 2016, oil on canvas, 130×162cm
↓ <숲길과 유니콘(Woodpaths and Unicorn)>, 2016, oil on canvas, 91×91cm



“ 최근에는 에그 템페라와 실버 포인트 드로잉이라는 서양의 고전 기법을 활용한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에그 템페라는 안료를 달걀 노른자와 섞어 그리는 방식이고, 실버 포인트 드로잉은 은필^{silver point}로 드로잉을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유화 또는 아크릴릭 물감을 이용한 회화 작업이나 연필을 이용하는 드로잉에 비하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에그 템페라의 경우 그림의 지지대를 직접 제작해 전통 방식으로 만든 젯소^{Gesso}를 수십 번 칠하고 사포로 갈아 표면을 단단하고 곱게 만듭니다. 그다음 달걀 노른자와 안료를 섞어 아주 가느다란 붓으로 매우 많은 선을 그으며 붓질을 해주고 색이 미세한 변화를 주면서 조심스럽게 렌더링^{rendering}합니다. 실버 포인트 드로잉의 경우 종이 표면에 특수 처리를 해야 은과 같은 금속으로 그었을 때 선이 만들어집니다. 연필처럼 강하게 누르면 진한 선이 나오고 살짝 누르면 연한 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톤과 굵기의 선이 그어지기 때문에 명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끝없이 많은 선을 그고 교차시키는 해칭^{hatching} 작업을 합니다. 한번 그은 선은 지울 수 없으므로 선 하나하나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여러 면에서 현대의 회화 매체보다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대신, 작업을 할 때 특별히 집중해야 하므로 ‘몰입’의 상태로 가기가 수월합니다. 이렇게 몰입의 상태에서 작업을 할 때 창작자로서의 내가 창조되어 가는 예술 작품과 접촉하고 둘의 시간과 세계가 교차하며 미술적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재는 이처럼 몰입을 통해 창작 과정에서 미술성이 발현된다고 믿으며 이러한 불편한 과거의 작업 방식을 택해 이어오고 있습니다. ”

“ 지금은 네 살 아들을 키우고 있어 육아와 작업 외에는 시간을 내기 힘들어 문화생활을 가까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금천예술공장에 함께 입주해 있는 15기 작가들의 작업을 보면서 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제 작업은 과거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 매우 수공적인 고대의 방식을 취하는데, 이곳에서는 회화와 조각 외에도 설치에서부터, 영상·공연·사운드아트 등 현대적인 매체와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작업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매체 또는 주제와 관련해 마주한 한계와 고민을 듣고 그것을 또 작업을 통해 해결해가는 노력을 보면서 제 작업을 반성하고, 저 또한 어떻게 하면 고전과 현대를 잘 결합해 더 재미있는 작업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금천예술공장에 입주해 있는 한 해 동안 풀어야 할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

“ 올해 8월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에서 개인전을 엽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작품들은 원목을 조각해 그 위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금박을 입혀 공예적인 느낌도 날 듯합니다. 더군다나 청화로 그린 도자 조형물도 있어서 언뜻 우리가 흔히 아는 회화 전시와 거리가 멀 겁니다. 방법이 어찌 되었든 모두 회화에 대한 제 생각에서 이어진 작업이고 예술의 미술적 힘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우리가 속한 세계의 신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창 작업 중이라 전시장에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한데 회화와 예술, 우리의 삶과 세계에 대한 저의 믿음과 소망이 잘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서울문화 예술교육센터 양천팀 이대욱 영감이 가득한 수조를 거닐며

당신을 소개해주세요. 현재 예술교육실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양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대욱입니다. 미술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했고, 2019년 서울문화재단에 입사해 이제 만 4년 7개월 정도 됐네요. 대학 시절에는 창작 작업을 하면서 미술 교사가 되고자 임용시험을 준비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서울문화재단을 알게 됐고, 운 좋게도 입사를 준비한 그해에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예술 자체보다도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과 주변 환경 등 넓은 의미의 문화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일과 휴식, 먹고사니즘에 관해서도 생각이 많습니다. 틈나는 대로 독서를 하며 다양한 분야를 탐구하고 있고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은 어떤 공간인가요.

과거 수돗물을 공급하던 김포가압장을 리모델링해 2016년 개관한 국내 최초 어린이 전용 예술교육 공간입니다. 물을 담아두던 약 800평 규모의 외부 수조 공간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도시 한복판에 운동장보다도 드넓은 공간이 있다는 것이 놀랍죠. 개관한 이래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녀와 함께 들르곤 하시는데요. 특별히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날에도 상설 프로그램을 체험하거나 어린 자녀가 뛰놀 수 있도록 이곳을 찾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하교 후에 마치 놀이터처럼 여기며 센터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센터는 언제나 개방된 공간이거든요. 또 센터 바로 뒤에 서서울호수공원이 있어 유동 인구가 상당합니다. 공원을 방문했다가 센터로 이동하거나 주말 나들이를 나왔다가 센터 외부 수조 공간에 돛자리를 깔고 휴식하는 모습도 자주 보게 돼요. 그런 점에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은 '가족들의 놀이터'가 아닐까 합니다.

올해, 이 놀이터를 장식할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나요.

지난해 1월, 당시 서서울예술교육센터로 불리던 이곳으로 발령받아 예술교육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일 년간 서울시 정책사업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술힐링놀이터'를 운영하며 5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토요일마다 센터 전 공간을 활용해 엄마아빠와 자녀의 소통과 휴식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민예술학교' 프로그램 공모 사업과 상설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의 시민 대상 예술교육 대표 브랜드 사업인 서울시민예술학교는 지난해 하반기에 처음 시작했는데요. 올해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과 용산 두 곳에서 봄(5~6월)·여름(7~8월)·가을(9~11월) 시즌으로 확대해 감상·창작 유형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양천에서는 공간 특성에 맞게 어린이와 가족, 노년층을 포함한 성인을 대상으로 시각·연극·무용·음악·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가정의달인 만큼 5월에는 센터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5월 4일 토요일에는 어린이날 주관을 맞이해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오프닝 행사를 여니 많이 찾아와주세요! 그리고 지난해 진행한 '예술힐링놀이터'는 (예비) 부모님과 자녀 등 가족,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5월 25일 첫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다채로운 공연, 워크숍, 체험 등이 준비되는데요.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부모님과 자녀가 따로, 또 같이 즐길 자리를 마련했으니 이 기회에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을 찾아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 특성상 예술가보다는 어린이나 가족과 자주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올해 초,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센터에 상설 체험을 하는 부모님들이 계셨는데 그중 왠지 익숙한 아버님이 계시더군요. 그분도 저를 보고 긴가민가하는 표정이셨고요. 알고 보니 제 아내의 지인 가족이셨어요. 서로 기억이 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눴는데, 센터에서 아주가까운 곳에 거주하시더라고요. 예전부터 센터를 알고 있었다고 하고요. 자녀가 아직 24개월이 채 되지 않아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면 종종 이곳에 들른다고 하셨어요. 아이에게 여러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은데, 주변에 마땅한 곳이 없다고 고충을 토로하시더군요. 아직 센터에서 상설 체험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람 씩러 들르기에 좋아 자주 센터에 오신다면서요. 반갑고 뿌듯한 마음과 함께, 따로 홍보한 것도 아닌데 이미 우리 센터를 알고 그동안 방문하셨다는 점에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해봐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됐어요. 저는 지금 자녀가 없지만, 이 경험을 계기로 조금 더 방문객의 입장에서 공간 경험과 프로그램에 대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담당했던 예술청 공간은 완전히 결이 달랐을 듯합니다. 입사 후에 두 달 정도

청년예술청 개관 준비 업무를 담당하다 2020년 초 예술청팀으로 이동했는데요. 그 후로 종종 청년예술청에 들 때면 노트북을 두고 작업하는 예술가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공간 분위기가 편안하고 쾌적해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현재 서울예술인지원센터로 확대된 예술청 개관을 준비할 때도 앞서 문을 연 청년예술청의 운영 사례를 많이 참고했구요.



새로운 공간을 개관하는 업무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특히 재단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제게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준비하는 일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상황과 변수가 수시로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점차 늘어나고 공간이 활성화되기 뿌듯하더라고요. 거의 2년간 개관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끔은 내 업무가 물리적 실체 없이 막연하게 느껴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바라보니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보람이 듭니다. 지금은 다른 부서로 이동했지만, 공간이 워낙 잘 운영되고 있어 방문할 때면 언제나 친근함이 들어요. 현재 두 공간을 운영하는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영감을 주는 것들을 이야기해볼까요. 모든 것이 제게 영감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 장소, 책과 영화, 예술 작품, 날씨에서도요. 무언가에서 영감을 받는 것보다, 언제 어디서든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제 안테나와 감각을 기민하게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무 시간에는 센터를 찾은 시민들을 보고 영감을 얻기도 하고, 점심시간에는 종종 호수공원을 산책하다 주변 풍경이나 김포공항에 착륙하는 비행기를 보고 영감을 얻기도 해요. 더 중요한 건 뭔가 보고 느끼고 생각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딘가 돌아다닐 때면 되도록 휴대전화를 잘 안 보려고 노력합니다.

스무 살 서울문화재단에 축하 인사를 건네주세요.

종종 오래전 재단에서 있던 일, 행사에 관한 일화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럴 때면 속으로 당시 제 나이를 계산해보면서 재단의 지난 역사를 실감하지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절대 짧지 않은 것 같아요. 종종 사업 기획을 위해 지난 자료와 운영 사례를 살피다 보면 지금 시점에서 봐도 효과적이고 참신한 사례가 많은데요. 그간의 훌륭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휘발되거나 잊히지 않도록 잘 기록하고, 내부적으로 그 기억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서울문화재단이 나아갈 길과 비전은 무엇인지, 존재 이유와 당위성을 구성원이 함께 고민하고 공통된 지향점을 갖고 나아가간다면 시민과 예술가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을 꾸준히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창작의 자유를 위하여 서울장애예술 창작센터 공동창작워크숍 결과 전시

공동창작워크숍을 기획하기로 했다.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에서 함께할 창작자를 모집했다.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작가들과 공동창작워크숍에 참여할 분을 찾습니다.' 그렇게 함께하게 된 참여자들은 장애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없는 와중에도 사회적으로 정점이 되는 장애 담론에 관심이 많았다. 그들의 경력과 연령대는 모두 달랐다. '어떤 기획을 해야 하지?'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입주작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창작워크숍의 목표는 지속해서 교류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만드는 데 두었다. 이동이 어렵거나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한정된 사회적 관계를 벗겨내고 싶었다. 이를 위해서는 결과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됐다. 나는 작가들이 더 많이 만나고 부딪힐 수 있게 하기 위해 공동창작워크숍에 '포럼'이라는 가면을 씌웠다. 더 많이 질문하고 더 많이 싸우세요.

공동창작워크숍을 기획하는 당시의 나는 '실패의 기회를 빼앗기는 부당함'이라는 장애 담론에 꽂혀 있었다. 오랜 기간 신경 다양성 작가들과 함께 활동하며 느낀 것은, 취약한 장애인이라는 전제와 그렇기 때문에 보다 나은 사람이 앞서 배려한다는 다소 폭력적인 상황들을 마주하는 지겨움이었다. 일상에서도 실패를 빼앗기는 일은 비일비재하지만, 창작의 영역에서는 창작 주체 자신도 타인의 선제적 배려에 익숙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한참이 지나 깨닫게 되었을 때, 관계적 불균형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다. 나는 이러한 것이 위험으로 느껴졌다. 창작이 '나다움'의 축을 세우고 회전하는 일이라면, 공동 창작을 위해서는

→ <살아있는 병신들의 밤>과 <목비밀걸개번호이곡> 촬영 현장
↓ 송상원, <보이세요? 저도 안 보여요>, 2024,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 130.3×162.2cm



자신을 찾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먼저였다. 공동 창작이라는 사업화된 결과물에 목적을 두지 않고, 과정 자체와 모둠에서 맺어지는 관계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동창작워크숍의 표제를 '위험 포럼'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포럼을 진행하는 데 규칙이 될 '위험 원칙'을 세웠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관계를 맺을 때 앞선 배려에서 자유롭고, 솔직하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서로 더 많이 부대끼 조건을 마련하고 싶었다.

'위험 원칙'은 ❶(될 수 있으면) 안 해본 방법을 선택하기 ❷하기 어려운 질문 해 보기 ❸대답하기 어려우면 중얼거리기 ❹(어려워도) 숨겨둔 것 꺼내기 ❺더 낫설고, 더 불안한 것 즐기기 ❻작업에 대한 비판적 태도 유지하기였다. 이 원칙들은 그 당시 기획자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었다. 나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작가들에게 '자발적 워크숍'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처음에는 '자발적'이라고 제시된 워크숍에 작가들이 당황했다. 몇 번을 만나야 하는지, 얼마만큼을

만들어내야 하는지 반복적으로 물었다. 사실 그런 건 어디에도 없었다. 이런 상황은 작가들이 창작이라는 자유를 창작지원 제도에 빼앗긴 것만 같아 슬프기도 했다. 작가들은 모둠의 공함에 맞는 방법, 이야기하는 방법, 작업하는 방법을 만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위험 원칙'은 때로는 변명할 수 있는, 때로는 의지할 수 있는 틀이 됐다.

'자발적 워크숍'으로 만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 중 하나는 장애에 대한 일부 인식이 다소 관념적이라는 것이다. 현실에서의 장애를 경험하며 작가들은 장애를 정의하고자 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장애를 찾는 것은 무색해지고 장애는 소통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우려한 말이나 문장을 얼마나 잘 구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려 깊은 관찰과 교감하려는 의지로서의 소통 말이다. 소통의 관점에서 보면 장애는 장애인에게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있었다.

창작을 위해 작가들끼리 교신하는 방법은 다양했다. 혁명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동료들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보듬기도 하고,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기도 하면서 모둠에서의 자기 모습을 찾아갔다. 피할 수 없는 갈등은 정면으로 마주했다. 나를 할애해 남을 배려하기도 하고, 내 영역에 침범하는 사람을 밀어내지 않고 지켜보기도 했다. '자발적 워크숍'에서 작가들은 워크숍을 기획해서 서로의 장르를 경험해 보기도 하고 예술과는 상관없는 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작가들은 나와 다른 예술의 방법을 탐구하는 동료와의 차이를 체감했다. 부대끼의 괴로움을 감내하는 과정은 일정 시간이 지나자 작가들에게 안정감이 됐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아는 존재,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존재가 언제든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사실은 중요했다. 활동 이력만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예술가의 정체성은 사회에서 늘 불안하지만 동료와 함께 하는 시간은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했다.

<위험 재앙! 그것이 바로 우리다>는 결국 나를 찾는 방법과 그 여정을 보여준다. 장애·비장애 예술가 20명이 지난 6개월간의 공동 창작으로 5개 색션의 전시를 구성했다. '곤란포럼'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친구의 의미에 대해서 탐구했다. 장애와는 무관하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무언가를 함께 하는 것이 어렵다는 데에 모두가 공감했다. '이노와와 림'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 공동의 세계에서 자신을 분명하게 지키면서도 서로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애정의 형태를 찾았다. '풍질노도'는 같은 키워드, 같은 상황과 조건 속에서 각자가 작업을 진행하며 여기에서 나온 아주 다른 개인의 차이 그 자체를 즐겼다. 사소한 일상을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뜻하지 않게 발견한 균열로부터 서로를 이해하는 단서를 찾았다. '샌더볼트'는 공동 창작에서 재확인한 자신의 한계와 해방을 개별 작업으로 녹여냈다. 신을 향하거나, 아이를 키우거나, 아픈 몸을 치유하거나, 엄마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기우는 방향의 순응과 염원으로 발전시켜 갔다. '좀비'는 장애를 좀비에 비유하여 세계관을 일구었다. 공존을 위해 모듬원은 좀비의 언어를 번역하는 방법을 찾았고 Q레이터가 '나는 좀비다'라는 매니페스토를 작성하는 것으로 귀결했다. 지금까지 공동창작워크숍의 과정을 함께 하며 작가들이 몰두한 것은 장애나 소통보다도 나를 향하려는 노력이었다. 그 어떤 장애도 무색한 관계적 방법을 찾는 것 역시 나를 아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백남준을 오마주한 우리의 선언과도 공명한다. 위험 재앙! 그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위험 재앙! 그것이 바로 우리다>
5월 3일부터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월요일 휴관)
노들섬 노들갤러리1
*음성 해설 및 점자 안내, 수어 해설, 큰 글자 자료 제공

모두의 일상이 예술이 되는 곳 서울 시민예술학교 봄 시즌

서울시민 누구나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민예술학교'가 2024년 서울 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과 용산에서 5월부터 약 8주간 봄 시즌을 진행한다. 새단장 후 첫 문을 여는 이번 봄 시즌에서는 음악·무용·문학·시각·연극 등 장르별 예술가를 만나 감동을 경험하고, 취향을 발견하며, 때로는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는 등 예술적 관점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서울시민예술학교'의 모든 프로그램은 서울문화재단의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및 재단이 운영하는 문화공간에서 이뤄진다. 현재 운영하는 양천과 용산을 비롯해 올해 개관 예정인 강북·서초·은평까지 총 5개 센터는 각각 도심권(용산)·서남권(양천)·동북권(강북)·동남권(서초)·서북권(은평) 등 5개 지역 거점을 기반으로 한다. 서울 전역 어디서나 다양한 장르, 양질의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좋은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는 양천과 용산 센터에서만 서울시민예술학교가 진행되지만, 강북·서초·은평이 순차적으로 문을 여는 2025년부터는 전체 5개의 권역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누구나 일상과 예술이 맞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폭넓게 제공할 예정이다.

2024년 서울시민예술학교는 예술에 대한 이해와 경험 정도를 기준으로 시민의 선택권을 높이고자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5개 센터 공통 '예술교양'과 센터별 특화 과정 '예술체험', 그리고 준전문가 수준의 '마스터 과정' 총 3개로 교육 과정을 구분했다.



용산 | 클래식 공감 토크콘서트- 김대진&정지원&김성현



용산 | 미술과 과학이 만나는 토크콘서트- 정소영&김상욱

'예술교양'은 예술을 평소에 접해보지 않아 잘 모르지만 예술 취향을 발견하고 싶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5개 예술 장르(문학·미술·전통·음악·무용)의 1회차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5주 과정으로 기획되고, 향후 5개 권역별 센터에서 공통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024년 하반기에는 양천과 용산 두 곳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한다.

'예술체험'은 예술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이해도를 높이고 싶은 성인이나 이미 예술을 즐기면서 자신의 취향을 깊게 탐구하고 싶어 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시민과 예술의 친밀도를 고려해 5개 센터별 특화된 장르 기반의 차별화된 예술교육을 제공하며 봄·여름·가을 시즌으로 구성된다. 이번 5월에 운영되는 서울시민예술학교 봄 시즌이 시작이며, 다양한 참여자 특성을 고려해 예술을 만나는 경험을 확장하는 '감상' 유형과 예술로 나를 표현해 보는 '창작' 유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용산 | 낭독이 있는 토크콘서트-장강명&오조



양천 | 바다울&구민지 토크 콘서트

'마스터 과정'은 준전문가 수준으로 예술적 안목을 기르고 싶은 성인과 예술가를 만나 다양한 예술적 활동을 체험하고 싶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적극적인 형태의 시민예술 활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16주차 장기 과정의 전문적인 예술교육으로, 올해는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시각·음악·연극 3개 장르를 기반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센터별 특화 장르를 체험할 수 있는 2024년 서울시민예술학교 봄 시즌은 오프닝 4개 프로그램을 비롯해 감상 유형 14개, 창작 유형 10개 등 총 28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감상 유형에서는 예술 작품을 접하고 스스로 작품을 해석해보며 나만의 취향을 만들어볼 수 있고, 창작 유형에서는 예술가의 작업 과정을 체험하면서 나만의 예술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예술을 통해 나와 마주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서울시민예술학교의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프로그램은 장르별 유명 예술가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이뤄진다. 5월 4일에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에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은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에서 각각 진행된다.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에서는 거문고 연주자 바다울과 정가객 구민지가 예술의 감동을 나누는 순간을 만든다. '예술과 현실의 줄다리기'라는 제목의 오프닝에서는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거문고 연주와 정가가 어우러진 공연을 보고 두 예술가의 예술세계와 작품 탄생 과정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자칫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전통 공연에 전문 해설을 더해 거문고와 정가에 대한 새로운 예술적 시각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에서는 음악·문학·시각 장르 예술을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오프닝 토크 콘서트를

마련했다. 첫째 날 열리는 '클래식 공감 토크콘서트'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대진 피아니스트와 정지원 피아니스트의 포핸즈 연주를 감상하고 훌륭한 연주자를 키우는 것에서 나아가 음악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것에 대해 김성현 조선일보 기자와 두 피아니스트가 이야기를 나눈다. 다음 날 '낭독이 있는 토크콘서트'는 문학 장르를 주제로, 취향이 곧 직업이 되어버린 가수 오조와 장강명 작가가 함께한다. 출연진이 직접 텍스트를 낭독하며 문학에 대한 여러 생각을 나누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마지막 '미술과 과학이 만나는 토크콘서트'에서는 방송 프로그램 <알쓸신잡>에 출연하며 알려진 김상욱 교수, 정소영 현대미술 작가가 만나 물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예술은 어떤 것인지, 일상에서 예술을 향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관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서울시민예술학교 봄 시즌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과 신청 및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문화재단

↑ 2023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에서 열린 서울시민예술학교 프로그램 '나의 낭만아바타'

서울시민예술학교 누리집(sfac.or.kr/asa)을 통해 센터·장르·유형별로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봄 시즌 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신청을 마감하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은 4월 22일부터 점진적으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은 5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관심있는 시민 모두 서울시민예술학교에서 즐거운 영감을 가득 채울 수 있길 바란다.

서울시민예술학교 봄 시즌 오프닝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5월 4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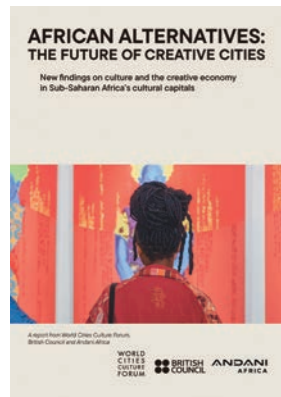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5월 22일부터 24일, 오후 7시부터 8시 40분까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민예술학교 누리집(sfac.or.kr/asa) 참조

아프리카 창조도시의 미래 ①

세계 주요 도시의 문화정책을 공유하고 교류하기 위해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설립된 세계도시문화포럼 World Cities Culture Forum, WCCF은 매년 세계도시문화리포트 World Cities Culture Report, WCCR를 비롯해 도시의 통계 데이터를 공유하고 문화적 잠재력을 발굴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아프리카 대안: 창조도시의 미래 보고서 The African Alternatives: The Future of Creative Cities Report'는 아프리카 11개 수도를 선정,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문화적 동향에 대해 분석했다. 아프리카는 2050년까지 두 배 가까이 인구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도시가 품은 창조적 가능성과 문화적 잠재력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서울]은 국내 독자를 위해 WCCF의 아프리카 도시 리포트를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세계문화도시포럼의 '아프리카 대안: 창조도시의 미래 보고서' 원문은 해당 누리집(worldcitiescultureforum.com)에서 내려받아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아프리카 Accra

가나의 수도 | 면적 225.7km² | 인구 267만 명
1인당 GDP 2,176달러

최근 몇 년간 아크라라는 전 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도시였다. 이러한 인기에는 활기찬 문화예술계를 향한 아크라의 포부와 영향력이 어느 정도 기여했으며, 매년 개최되는 샬레 와테 스트리트 아트 페스티벌 Chale Wote Street Art Festival과 아프로첼라 Afrochella (구 아프로퓨처 페스티벌)도 한몫했다. 두 페스티벌은 캄핀스키 골드 코스트를 비롯한 럭셔리 호텔의 등장과 맞물려 해당 지역주민과 자국민은 물론, 해외 관광객에게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주요 문화 관광지로는 가나 국립박물관, 가나 예술과학 아카데미, 가나 국립 기록보관소, 가나 중앙도서관, 국립극장, 독립광장, 콰메 은크루마 기념공원·마우솔레움, W. E. B. 듀보이스 기념관, 아크라 국립 문화센터 등이 있다. 아직 국립 미술관이 없는 관계로 갤러리 1957 같은 갤러리를 통해 아크라가 추구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 《Existing Otherwise》(2022) 설치 전경, 사진 Ernest Sackitey, Courtesy Savannah Centre for Contemporary Art Tamale
→ 2022년 누부크재단(Nubuke Foundation)에서 열린 서실리아 램티 보치웨이(Cecilia Lamptey-Botchway)의 전시 《Make We Dance》©Isaac Gyamfi

미술 공예품으로 유명한 마콜라 시장과 같은 지역 시장에서는 켄테 kente 등 가나의 전통 직물을 구매할 수 있다. 다채로운 색감의 이 직물은 도시 전체에 기회를 가져다주고 사람들에게는 소득이 된다. 시장 여기저기에 기반을 형성한 재봉사들은 관광객과 주민 모두에게 빠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글로벌 마마스 Global Mamas 같은 기업들은 여성 재봉사의 기업가 정신을 동력 삼아 이들의 기술을 활용해 크리에이티브한 공간에서 수요를 충족시키고 수입을 창출해왔다. 왁스업 아프리카 WaxUp Africa·예부 Yebu 등 디자이너 브랜드 또한 아크라에 자리잡고 있다. 종종 '갈리우드 Ghallywood'라 일컬어지는 가나의 영화산업은 현재 성장세다. 2021년 추산 30,678명이 아크라의 예술·엔터테인먼트·오락 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 케이프타운 Cape Town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도 | 면적 2,455km²
인구 489만 명 | 1인당 GDP 6,776달러

케이프타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문화를 보유한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이곳은 유명한 휴양지이자 전통과 현대의 문화가 공존하는 환경을 지닌, 아프리카 대륙으로 접근하기 용이한 관문으로 알려져 있다. 케이프타운은 아트스케이프 시어터 센터, 이지코박물관, 로벤 섬, UCT 미카엘리스 갤러리, 제이츠 아프리카 현대미술관 등 문화예술 유산과 공간을 여럿 보유하고 있으며, 활기 넘치는 수공예와 디자인으로 유명한 V&A 워터프론트 등이 워터세드 마켓 안에 상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곳은 2014·2016년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서 선정되기도 했으며, 저명한 교육기관, 넘치는 창의 인재, 활기찬 문화예술 분야의 고장이기도 하다. 또 2017년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유네스코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의 에덴 온 더 베이
← 2016년부터 현재까지 200편 넘는 벽화를 제작하며 케이프타운을 주목받게 한 국제 공공예술 페스티벌 'Baz-Art'

창의도시(디자인 분야)에 선정되며 문화·창조산업 육성에 헌신적인 도시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창조산업에서 케이프타운의 명성은 디자인 인디바, 오픈 디자인 페스티벌, 인베스테크 케이프타운 아트페어, 케이프타운 패션위크, 데코렉스 케이프타운, 케이프타운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남아프리카 에코 필름 페스티벌과 같은 비주얼 아트·디자인 행사를 정기적으로 주최하며 공고해졌다. 이곳은 또한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영화산업의 메카로, 50억 랜드(한화 약 3,5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해당 산업에 유입되어 2022~2023년 기준 35,000개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3,900건 이상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케이프타운의 문화는 공통의 신념과 공동체 정신에서 비롯한 표현으로 발전하고 있다. 문화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중 하나이며 일자리 창출을 이루는 중요한 경제 요소지만 여전히 사회적 지위와 결부돼 있고, 예술을 둘러싼 도시의 문화 풍경과 인식을 형성하는 데는 아직도 식민주의의 잔재가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더 많은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 도시의 문화·창조 공간에 관한 공평한 접근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케이프타운은 현재 활발하게 창조 분야와 협력을 꾀하고 있으며, 2014년 도시 차원의 문화정책을 수립한 아프리카 대륙에서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다.

3 다카르Dakar

세네갈의 수도 | 면적 110km² | 인구 150만 명
1인당 GDP 1,599달러

다카르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미디어아트 분야)인 동시에 세계유산도시기구의 회원도시다. 이곳에서는 블랙아트 페스티벌World Festival of Black Arts, 다카아트Dak'Art(다카르 비엔날레), 다카르 카니발,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패션위크인 다카르 패션위크를 비롯한 여러 대형 문화·창조산업 행사가 열린다.

다카르는 상대적으로 잘 개발된 문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 테오도르 모노드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국립미술관, 다니엘 소라노 국립극장, 국립대극장, 문화회관, 현대문화회관 등 박물관·갤러리·극장이 이를 잘 보여준다. 시각예술 분야에서 유명한 빌리지 데 자르Village des Arts de Dakar처럼 크리에이터를 위한 민간·공공 작업 공간도 존재하지만, 예술품은 소규모의 일상적 구조, 즉 상점·갤러리·마켓 등에서 주로 유통되고 있다. 또한, 블레즈 상고르 문화회관, 로 머테리얼 컴퍼니, 케르 티오사네, 다카르 디자인 허브처럼 문화 중심지이자 창조적 허브 역할을 하는 곳도 여럿 있다.

특히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하는 국제적인 에이전시를 주축으로 문화 기반 발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문화원, 독일문화원, 영국문화원, 스페인문화원 등 문화기관은 창의 인재를 위한 장소와 플랫폼을 제공하며, 이들의



작품을 공개하고 교육과 워크숍 등을 열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다카르의 음악산업처럼 다양한 문화산업군이 형성되고 있으며, 각 산업군이 경제적 구조를 갖추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로도 작용하고 있다.

세네갈은 문화예술 활동 증진에 있어 오랜 역사를 지닌 국가이며, 특히 수도인 다카르는 국제적인 면모를 보인다. 최근 자국 문화·문화유산부 및 예술국을 통해 창조 분야의 발전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해 예술가의 실정을 개선하려는 목표를 갖고 분야별 보조금을 마련하거나 인프라와 법률을 확충하고 있다. 2017년 설립된 세네갈 지식재산권·저작권전권협회는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한다.

2014년 다카르는 다양한 문화계 관계자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당시 문화관광부 수장의 전적인 비호 아래 문화정책 수립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 절차는 국가 차원의 우선순위에 따라 창작 및 유통 지원, 문화계 인사 교육 및 민간 계획 촉진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 기업가정신 및 경제 발전에 집중해 추진됐다. 비록 그 속도는 더디지만, 다카르는 2022년 기준 2만 5천 달러(한화 약 3,400만 원)에 준하는 1억 5천만 CFA 프랑 규모의 민간 문화사업 지원금을 지원하며, 이는 다카르 내 문화 프로젝트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

↓ 트레이시 로즈(Tracey Rose)가 연출한 로 머테리얼 컴퍼니의 RAW ACADEMIE SESSION 4 워크숍



4 프리타운Freetown

시에라리온의 수도 | 면적 82km² | 인구 130만 명
1인당 GDP 461달러

프리타운이 10여 년간 이어진 내전으로부터 여전히 회복 중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도시의 많은 문화 인프라는 개발 혹은 재개발 필요가 있다. 하지만 행사와 축제를 부활하고 전 세계 관객을 끌어오기 위해 페스티벌 문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실험하는 등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고 재생하려는 노력 또한 존재하고 있다. 아프리카리비안 페스티벌AfriCaribbean Festival이 그 대표적인 예로, 문화가 어떻게 관광을 촉진하고 도시의 수익을 창출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시에라리온 문화예술 페스티벌SLACfest과 같이 국내외 아티스트의 예술성을 표현하고 교육·엔터테인먼트·전시를 장려하는 축제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곳의 문화유산은 도시와 내전의 역사에 대한 박물관(시에라리온국립박물관, 전쟁기념관, 국립철도박물관), 종교문화기관(프리타운 모스크, 세인트 조지 대성당)을 비롯해 상당 부분 국가적 유산에 집중돼 있다.

↑ 시에라리온 프리타운의 해변과 도시 풍경

도시의 핵심인 프리타운 관광지구는 저녁이 되면 더욱 활기찬 모습을 띤다. 시에라리온의 문화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춤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에라리온 국립무용단Sierra Leone National Dance Troupe은 무용 분야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며, 국내외에 걸쳐 시에라리온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홍보하고 있다. 가면무도회, 축제, 연극 등은 문화를 통해 도시 이곳저곳을 즐기는 방법 중 일부에 불과할 뿐, 이 도시는 역사를 재기록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지식, 교육, 창조경제 분야에서의 창의성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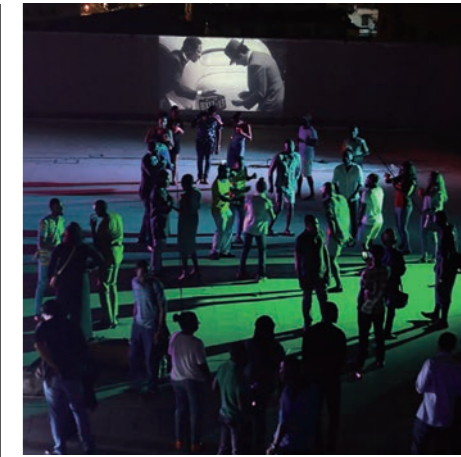
프리타운의 공식 문화정책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시에라리온 관광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프리타운의 문화 프로그램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있다. 시장과 시 관계자 역시 패션산업에 활발하게 관여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해외개발연구소, 여러 저명한 패션하우스와 파트너십을 맺은 프리타운 패션디자이너, 크리에이티브 아트 네트워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 라고스Lagos

나이지리아의 수도 | 면적 1,007km² | 인구 159만 명
1인당 GDP 2,184달러

넘치는 관광 명소와 다양한 민족 집단은 라고스를 문화·창조산업이 번성할 수밖에 없는 매력적이고 다채로운 도시로 만들었다. 종종 '놀리우드Nollywood'로도 불리는 이 도시는 나이지리아 영화산업의 중심지이자 성장하는 음악산업의 발상지가 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창조·문화 분야는 대부분 관광에 집중돼 있는데 여러 관광지과 일부 문화 인프라는 라고스 내 사적지와 유적지, 나이지리아의 유산 및 문화 관련 성지, 극장, 박물관, 갤러리, 문화예술공간, 플랫폼, 경기장 등을 아우른다.

여기에는 국립극장, 이가이둔간란, 이누 오와 모스크, 시사이드 코티지 시어터, 아트 트윈티 원, 블룸 아트 라고스, 젤로시미 아트센터, 나이키 아트 갤러리, 오멘카 갤러리, 리볼빙 아트 인큐베이터, 테라 컬처, 라고스 현대미술센터, 코나 허브, 트리 하우스 등이 포함된다. 라고스는 또한 아트 엑스 라고스ART X Lagos, 라고스 비엔날레, 라고스 사진 페스티벌, 아케 아트&북 페스티벌, 라고스 패션위크, 에코 시어터 카니발 같은 국제 박람회와 전시·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 TNI와 나이지리아 괴테 인스티튜트, 비디오아트 네트워크가 협력해 개최한 파티

육성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창조 분야가 라고스 경제에 독특히 기여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성장의 여지는 충분하다. 분야별 우선순위 확충, 공간·자금 등 자원 할당 개선, 디지털화 수용, 협력 파트너십 육성, 예술에 대한 사회적 접근성 확충을 위해 문화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이러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한, 알리앙스 프랑세즈, 영국문화원, 독일문화원 등 여러 국제기관이 라고스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라고스 국립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 문화정책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정부의 자문역을 맡아 기관 인프라 발전 원칙을 창시하고 국내외 문화 협정을 이행하고 있다. 또 문화계 내에서 단체·기관과 관광예술문화부 간의 소통을 맡아 국가 문화정책의 이행을 돕고 있다.

← 라고스 TNI(The Nlele Institute)에서 열린 전시 연계 워크숍
↓ 나이지리아 라고스의 빅토리아 섬

2024 서울문화재단



예술인

문화공간

서울예술인지원센터

지원대상 |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

서울문화재단



COMMON

박현갑의 문화의 창
산천어축제와이건희기증관
걷다가 마주친 춤
여흥의 효율
낮말은 새가 듣고 날말은 시가 즐는다
한데 모여 사는 단어들—먹고살다
서울, 문화가 뿌리내린 도시
가락으로 기억하는 명인의일생
예술의 숨결이 공간에 깃들 때
그림으로 벗꽃엔딩

illust ©slowrecipe

산천어축제와 이견희 기증관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

오징어놀이·땅따먹기·딱지치기·자치기.<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통해 떠올리게 된 우리나라의 전통 게임이다. 오징어놀이에 대한 기억은 희미하나 나머지 게임은 흠뻑 마셔가며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작은 돌이나 나뭇가지, 달력이나 책 표지 등을 이용해 노는 것으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신나게 놀 수 있었다. 돌이켜 보니 땅따먹기에서는 도전 의식을, 자치기에서는 집중력을, 딱지치기에서는 순발력을 기를 수 있었다. 매일 보는 친구들이지만 함께 어울리면서 사회성도 기를 수 있었다.

나에게 어릴 적 추억을 되살린 <오징어 게임>을 세계인도 환호하고 심지어 즐기기도 한다니, 우리 문화의 위력을 실감하게 된다. 얼마 전 방송에 이탈리아 성인들이 거리에서 딱지치기하는 모습이 나왔다. 손으로 딱지를 내리치는 동작이 어설프지만 흥미로운 반응을 보이는 외국인들을 보니 기분이 묘하다. 인터넷 게임에 빠진 우리 아이들도 이런 놀이를 해 보면 신체 발육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2>를 올해 내놓는다고 하니 다시 한번 우리 놀이문화의 도약을 기대해본다.

놀이문화는 동서양 문화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놀이를 통해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점은 같다. 지리적으로 한정된 공간에서만

소비되는 것도 아니다. 이동의 자유와 기술 발달로 사람 간의 직간접적인 소통이 일상인 시대다. K-팝이나 드라마 등 K-컬처에 열광하는 세계인을 보면 우리 문화는 한반도라는 지리적 공간을 뛰어넘는 지 오래다.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 새롭게 추가되는 우리말을 보면 이런 우리 문화의 위력을 실감하게 된다. 김치·비빔밥·불고기·떡방 등 음식 관련 용어는 물론, 오빠oppa·언니unnie·대박daebak 등 일상어도 우리말 발음 그대로 영어로 등재되고 있다. 한류, K-팝, K-드라마 등 우리 문화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다.

지역축제도 빼놓을 수 없다. 강원도 화천군은 외국인들이 부러워할 독특한 지역축제를 하고 있다. 2003년부터 한겨울에 문을 여는 산천어축제다. 구제역과 코로나19가 유행하던 때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열리며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다. 올해의 경우, 지난 1월 6일부터 28일까지 23일간 축제 기간에 외국인 8만 명 등 153만 명이 방문했다. 주민 수 2만 3천여 명에 불과한 작은 산골에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사이에 150만 명이 넘게 방문했다니, 성공적인 축제라 할 만하다. 군은 축제 개최로 입장권 수익 20억 원에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만 1천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군의 한 해 예산인 4,250억 원의 23퍼센트 수준으로, 산천어축제가 지역 활성화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한다고 볼 수 있다.

축제의 주무대는 축구장 10개 크기의 화천천이다. 산천어는 영동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물고기로 바다와 먼 영서 지역인 화천군에서는 살지 않아 축제를 위해 전국의 양식장에서 수십만 마리를 공급받아 얼음 두께가 25센티미터 넘는 화천천에 풀어 놓는다. 낚시꾼들은 산천어를 구멍이 뚫린 얼음 위에서 낚고 맨손으로 잡기도 한다.

화천군은 성공적 축제를 위해 해마다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외신을 초청해 축제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런 노력 덕분에 2009년 미국의 '타임'지에서 화천군 축제 사진을 금주의 뉴스로 보도하면서 축제는 명성을 얻었고, 2011년에는 CNN 방송에서 세계적 여행잡지인 '론리플래닛'을 인용해 화천산천어축제를 겨울철 7대 불가사의로 소개해 세계적 인지도를 쌓았다. 올해 새해 첫날에는 '뉴욕 타임스'가 '올겨울 아시아에서 꼭 봐야 할 축제 5곳'을 소개하며 화천산천어축제를 가장 먼저 꼽기도 했다.

강원도 산골에서 이렇게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은 건 주목할 만한 일이다. 겨울철이면 도박을 하거나 술에 빠질 수 있는데, 낚시로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강원도 내 기초 지자체에서 하는 축제는 대부분 스키나 스노보드 등 설상에서 이뤄진다. 얼음 위에서 열리는 축제는 산천어축제가 처음이다. 산골이라는 공간적 한계를 다양한 축제 아이디어로 극복하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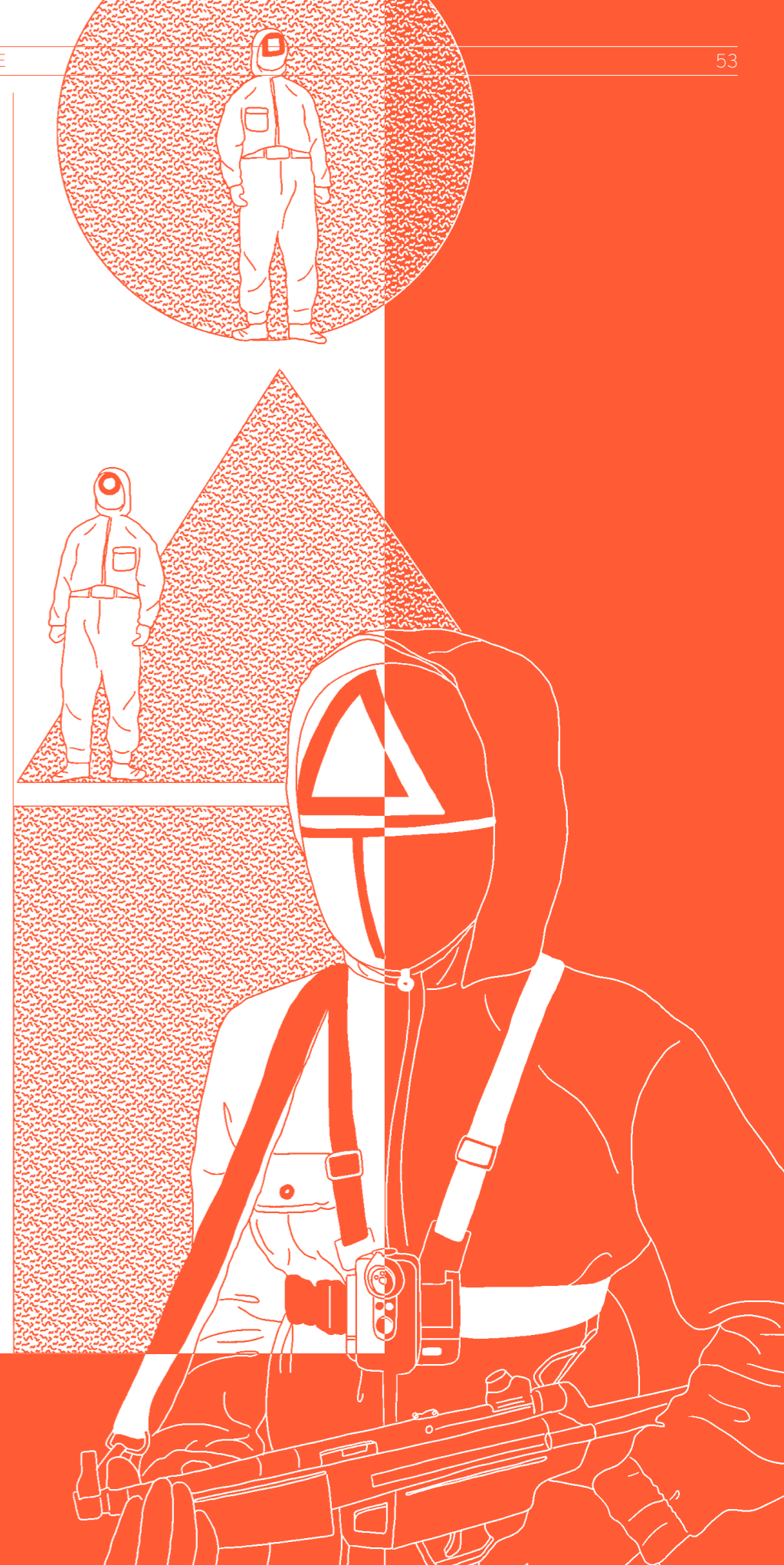
3년 전 고 이견희 회장의 유족이 국보급 문화유산과 미술품 2만 3,181점을 국가에 기증하면서 전국 4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술품 유치 경쟁에 나선 게 기억난다.

이 회장의 수집품 1호인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와 같은 그림과 도자기, 서화, 금속 공예품 등 고미술품 2만 1,600여 점에다 모네의 그림을 비롯한 서양화와 국내 근현대 미술품 1,400여 점을 기증했는데 감정가가 2조 원 이상으로 추정될 정도로 대단한 컬렉션으로 예술적 가치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이견희 컬렉션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계기로 별도의 이견희 기증관을 세워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한다고 했다. 이후 부산·여수·진주·울산 등 전국 40여 곳의 지자체에서 저마다의 인연을 강조하며 이견희 기증관 건립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최종 부지는 서울 종로구 송현동 녹지광장으로 결정됐다. 이견희 기증관은 현재 설계 공모가 진행 중이며, 내년 말에 착공해 2028년이면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개관하게 된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도시가 서울이니 서울에 이견희 기증관을 세우는 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이다.

하지만 지방소멸 시대에 이견희 기증관을 지역문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서울에는 각종 고궁 등 문화유산 자원이 많다. 지방에도 박물관과 미술관 등이 있으나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보급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은 빈약한 실정이다. 지리적 고유성이 없는 문화유산이라면 서울보다는 비수도권에 전시 공간을 확보해 지방 관광도 활성화한다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여흥의 효율

정윅희 무용평론가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부자는 시간 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할 일이 많고 집중력은 저하된 현대인에게 무언가에 시간을 투자해 몰입하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빨리 감기로 보고, 그것도 부담스러워 이를 요약해주는 유튜브 콘텐츠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한정된 시간과 돈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자본주의가 여흥에서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요즘 춤 공연은 짧습니다. 단막 공연은 한 시간 남짓이고, 전막 공연이라 해도 두 시간 정도면 끝납니다. 긴 공연의 대표 명사였던 전막 발레의 경우 원작은 세 시간 가까이 되지만 이젠 장면을 줄이거나 아예 막을 합쳐서 두 시간 정도로 압축되었습니다. 공연이 너무 길면 관객들이 부담을 느껴 아예 보러오지 않는다니 제아무리 고전이라도 몸집을 줄이고 있습니다.

여흥은 노동에서 벗어나 즐기는 행위입니다. 여흥은 '여유'와 '부'를 지닌 상류 계층이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수단이었고, 노동 계층에서도 일상의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외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대의 여흥은 특별한 이벤트였기 때문에 매우 길고 장대했습니다. 발레의 기원으로 일컬어지는 궁정 스펙터클 <왕비의 희극 발레[Ballet Comique de la Reine]>1581는 프랑스 귀족층의 결혼을 축하하는 공연으로 시 낭송과 음악·춤과 함께

마상 발레와 불꽃놀이까지 포함된 구경거리이며, 저녁 10시에 시작해 6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또한 루이 14세의 대표작인 <밤의 발레[Ballet Royal de la Nuit]>1653는 13시간 길이의 공연으로 밤새 진행되어 새벽에 끝났습니다.

조선의 여흥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1795년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기념하고자 수원으로 행차해 성대한 잔치를 벌인 화성행궁은 무려 8일에 걸쳐 치러졌습니다. 왕복 이동에 걸린 나흘을 빼더라도 나흘간의 잔치 동안 회갑 잔치뿐 아니라 특별 과거 시험과 대규모 군사훈련, 노인을 위한 양로 잔치까지 열렸으며 약 6천 명의 수행원과 말 1,400필이 투입되었습니다. 진찬연에는 무려 14가지의 춤이 추어졌고, 춤과 춤 사이에 술잔을 올리고 시를 읊었습니다.

지배 계층의 여흥이 많은 돈과 시간, 인력을 투입한 볼거리라면 민중의 여흥이라 해서 시간이 짧진 않습니다. 결혼식이나 축제가 열리면 여러 날 이어졌습니다. 전통적인 곳의 경우 해가 떨어진 이후부터 새벽닭이 울 때까지 하는 게 대부분이고 길면 2~3일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젠 너무 많은 자극과 즐길 거리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춤 공연의 경쟁 상대는 다른 춤 공연이 아니라 유튜브와 넷플릭스, 틱톡과 릴스입니다. 무료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 전통적인 여흥의 장르들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여흥에도 효율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흥의 큰 축인 스포츠 역시 그러합니다. 노동에서 벗어나 '여유'와

'부'를 기반으로 발달한 스포츠이건만 이제는 소요 시간과 수익이 반비례하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공연예술이 장르와 상관없이 대체로 한두 시간에 끝난다면, 스포츠는 종목마다 경기 시간이 상당히 차이 납니다. 축구처럼 정해진 시간 치러지는 종목도 있지만 특정 세트 수를 채워야 하거나 특정 스코어를 획득해야 끝나는 종목의 경우 서너 시간은 족히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의 초 단위 시간 감각에 익숙해진 대중 가운데 서너 시간의 경기를 인내심 있게 관람하거나 시청할 이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포츠계는 경기 시간 줄이기에 목매고 있지요. 종목을 막론하고 선수들의 준비 시간이나 교체 시간을 줄이고 시간을 잡아먹는 규칙을 없애고 있습니다. 농구에서는 공격권을 지닌 팀의 숏 제한 시간을 줄였고, 배구와 배드민턴에선 서브권을 가진 팀만 특점을 올리는 방식을 없앴습니다. 모두 경기 시간을 단축하고 박진감을 높여 관객의 이탈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몇 분, 몇 초라도 줄이고자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여간해선 꿈쩍도 하지 않는 종목도 있습니다. 테니스입니다. 테니스 경기는 점수를 모아 게임으로, 게임을 모아 세트로 이어집니다. 6게임을 먼저 따라야 한 세트를 이기며, 총 3세트 중 2세트 혹은 5세트 중 3세트를 먼저 따라야 이깁니다. 그런데 선수들의 실력이 막강막하인 경우 경기 시간이 한없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독 '혈투'가 많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시간을 넘기기란 자주 있는 일이고, 2010년 영국 워블던대회에선 무려 9시간 58분 동안 경기가 열린 적도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하여 밤

9시까지 경기하다가 다음 날에 이어서 경기를 치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기 시간이 예측 불가능하니 텔레비전 중계는 어렵겠지요. 효율과 예측 가능성이 곧 돈인 세상에 신진 팬층을 유입하기 어려우니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그럼으로써 잃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흥에서 효율을 높일 때 잃는 것이 뭘까요? 존재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전통주의자나 낭만주의자의 한가한 소리는 아닐까요?

공연예술에선 간혹 대책 없는 길이감과 지루함을 감행하고 감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2021년 금배섭 안무가가 이끄는 출판야무의 공연 <오>는 무려 5시간 반 동안 다섯 편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전부 솔로 작품으로, 전체 출연자가 안무가를 포함해 단 둘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인근 카페에서 떡과 음료수를 제공해주어 출출함을 달래며 공연을 보았습니다. 기껏해야 50여 명의 관객이 딱딱한 소극장 의자에 앉아 별다른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솔로를 연달아 보는 것은 개별 작품을 감상하는 것 너머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니다.

<뫼닝엔[Skymningen]>도 기억납니다. 모르텐 스펅베리[Mårten Spångberg]라는 안무가의 이 작품은 문화비축기지의 어두컴컴한 탱크 공간에서 2시간 10분 동안 펼쳐졌습니다. 두 시간을 넘는 물리적인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두 시간 내내 별다른 사건 없이 무용수들이 누워 있다 느릿느릿 움직이는 광경을 보아야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쉼 새 없이 주어지는 스펙터클한 자극에 익숙한 현대인으로서 이렇다 할 볼거리가 없는 이 작품을 보아내기가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생각나는 걸 보면 <오>도, <휘닝엔>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긴 시간을 견뎌내며 관객과 출연자가 함께 무언가를, 혹은 무언가의 부재를 경험한다는 감각을 일깨워주었으니까요. 오늘날의 예술가들은 여흥의 효율화라는 흐름에 맞서 자극과 박진감을 멈추고 빈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여흥의 본질은 자본이나 자금이 아니라 시간 그 자체니까요.

한데 모여 사는 단어들 — 먹고살다

오은 시인

“먹고살기가 쉽지 않아.” 단골 식당의 주인 어르신 말씀이 깊다. 말이 깊다는 것은 헤아릴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설불리 동조하거나 선뜻 위로를 건네기가 어려워서 한참을 가만있었다. 식재료 가격의 폭발적 인상으로 반찬 가짓수를 줄여야 할지 고민했다는 말씀이 이어진다. “사람을 먹이는 일이 나한테는 먹고사는 일이라는 게 재밌지?” 멀리 선반 위에 놓인 양파와 대파, 고추, 애호박, 감자, 오이 등이 보인다. “그렇지? 그런데 쉽지 않아도 해야 하는 게 삶이니까.” 어르신의 말씀에 멍해지고 말았다. 삶을 한다는 것, 그저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동적으로 이끌고자 할 때, 삶은 비로소 “하는” 것이 된다. ‘먹고살다’가 한 단어인 것처럼, 먹고 걷고 일하고 쉬고 만나는 일이 모두 삶이라는 단어로 수렴되는 것이다.

‘먹고살다’가 한 단어인 것을 처음 알았을 때, 어안이 병병했다. 어안이 “어이없어 말을 못 하고 있는 혀 안”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타이밍이기가 막혔다. 찾아볼 때마다 할머니께서 “밥은 먹었어?”라고 묻는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했다. 그 물음은 실은 “잘 살고 있지?”를 달리 묻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렇게 보면 밥을 잘 먹는 일이 잘 사는 일의 기본인 셈이다. 생활의 기본 요소는 의식주 세 가지지만, 개중 먹는 일은 생존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2000년대 들어서 생겨난 ‘먹고사니즘’이라는 조어만 봐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먹는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살아있어서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은 기쁨이지만,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은 절박함이다.

한편 “송충이는 술잎을 먹고 산다”의 형태로 쓰일 때는 ‘먹고’와 ‘살다’를 띄어 써야 한다. 문장 구성상 목적어가 필요할 때 먹는 일은 사는 일과 잠시 떨어져 있게 되는 셈이다. ‘먹고살다’일 때는 먹는 일과 사는 일 사이에 불가분 관계가 형성되는데 반해, ‘먹고 살다’일 때는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해진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주로 먹는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점에서, ‘먹고살다’ 이후에 ‘먹고 살다’가 가능해질 것이다. 생계가 해결되어야 생활이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처럼, 여유가 있어야 취향을 발견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빌어먹다’가 소환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빌어먹다’는 “남에게 구걸하여 거저 얻어먹다”라는 뜻이다. ‘빌다’는 잘 알다시피 “바라는 바를 이루게 하여 달라고 신이나 사람, 사물 따위에 간청하다”라는 뜻이다. 먹기 위해서 풍족한 이에게 간청하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그러나 이때는 ‘빌다’는 “남의 물건을 공짜로 달라고 호소하여 얻다”라는 뜻이다. 바라는 바와 호소하는 바의 차이일 수도 있겠으나, 전자의 ‘빌다’가 기약 없는 소원의 형태를 띠다면 후자의 ‘빌다’는 발품 파는 행동을 전제로 한 것이다. “빌어는 먹어도 다리아랫소리 하기는 싫다”라는 속담은 빌어먹을 때조차 품위를 잃지 않아야 함을 보여준다. ‘다리아랫소리’는 말 그대로 머리를 다리 아래까지 숙여서 내는 소리다. 굶실거리거나 애걸할 때 쓰이는 소린데, 이는 자신의 사정을 간곡히 알리는 목적을 가진 ‘호소’와는 엄연히 다르다. 말하자면 ‘빌어먹다’ 속에 ‘빌불다’는 없다.

‘빌어먹다’는 “빌어먹을!” 형태로도 많이 쓰인다. 그러나 ‘빌어먹을’은 독자적인 뜻이 있는 별개의 단어다. 이는 관형사로 “고약하고 몹쓸”이란 의미다. “빌어먹을 놈의 세상!” 꼴로 한탄할 때 주로 쓰인다. ‘빌어먹을’이 감탄사로 쓰이면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속이 상하거나 분개할 때 욕으로 하는 말”이 되는데, 그럴 때면 이 말의 앞이나 뒤에 으레 씬표를 동반한다. “빌어먹을, 돈을 다 잃었어!”나 “이를 어찌지, 빌어먹을!”

같은 문장을 떠올려 보라. 분명 어떤 면에서는 빌어먹는 일도 고약할 테지만, “빌어먹을”은 실패 이후에 쓰인다는 점에서 ‘빌어먹다’와 차별화된다. 물론 “빌어먹을, 빌어먹는 일이란!” 형태로 이 둘을 합쳐서 문장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먹고살기의 목표는 다름 아닌 살아남기다. ‘살아남다’의 첫 번째 뜻은 “어렸 가운데 일부가 죽음을 모면하여 살아서 남아 있게 되다”인데, 여기서 죽음은 단순히 삶의 반대말이 아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도 있다. 가슴속에 끝끝내 살아남은 희망은 어떻게든 이 풍진세상을 살아가게 해준다. 살아서 남는 일, 그것은 으레 폐허에서 시작되고 생존을 목표로 갱신을 반복한다. 살아남은 사람은 모두가 함께 살아남기를 바라기도 할 것이다. 삶은 ‘어렸 가운데 일부’에게만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는 ‘치고받다’가 필요하지만,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고받다’가 절실하다. 한데 모여 사는 단어에 따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그것이 펼쳐지는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먹고살기가 쉽지 않아.” 자리에 앉아 단골 식당의 주인 어르신 말씀을 찬찬히 곱씹는다. ‘먹고살기’와 ‘삶을 하기’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먹고사는 일이 삶을 하는 단단한 토대가 되어 준다는 사실을. 먹고사는 일에 힘써 작은 여유가 생긴다면 그것이 곧 삶은 ‘잘’ 하고 싶은 마음으로 연결되리라는 사실을.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는 이가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다고도 믿는다. ‘먹고살기 쉽다’보다는 ‘먹고살

만하다’에 가까워질 때, 비로소 여유가 깃들 수 있기 때문이다. 먹고살기 쉬운 상태에서는 주변으로 향하는 손길과 발길이 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놀고먹는’ 상태를 꿈꾸면서도 우리는 노는 것과 먹는 것 이외의 영역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다. 거기에 다르게 사는 일이, 나만의 삶이 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곤궁하더라도 부디 마음만은 남아돌았으면 한다. 베풀기까지 이어지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살필 수 있는 마음만이라도 남았으면 한다. 돌았으면 한다. ‘살아남다’와 ‘남아돌다’ 사이의 거리는 먼 듯싶지만, 살아남는 과정 틈틈이 남아도는 순간을 만들 수도 있다. 남아도는 순간 덕분에 어느 하루도 똑같지는 않다. ‘먹고살아남아도는’ 이상적인 상태를 떠올리니 절로 웃음이 난다. 한데 모여 사는 단어들 덕분에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가락으로 기억하는 명인의 일생

김보나 칼럼니스트

지난 3월 20일,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아쟁산조 보유자 박종선 선생이 타계했다. 박종선류 아쟁산조의 창시자이자 걸출한 한국음악계 예인 중

한 명이다. 그러나 온오프라인 기사를 통틀어 그의 부고는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발인 날,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에서 2014년 2월 16일에 제작한 방송을 재구성한 특집을 내보냈을 뿐이다. 무명의 배우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도 포털사이트 메인 화면은 물론이고 온라인 저널에도 기사가 몇 건씩 뜨는 세상에, 한국음악계 한 축을 담당하던 예인이 떠난 일에 세상이 너무 조용하던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오늘은 그와 그의 음악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박종선은 1941년 4월 17일, 걸출한 예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박영실 명창의 아들이자 박동실·공기남·공기준 명창의 조카였으며 임방울의 스승이던 공창식의 손주였다. 그렇다고 어린 시절부터 소리를 사사하진 않았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세 살부터 백부 슬하에 살다가 14세에 '화랑 여성창극단'에 입단하면서 본격적인 한국음악 예인의 길로 들어섰다. 극단의 10년 선배이자 스승이던 한일섭을 만난 곳도 바로 이곳이다. 마야호로 국극단이 성하던 시절이었고, 그 시류에 맞춰 '임춘앵 여성국극단', '햇님국극단' 등 여러 국극단을 전전하며 기량을 다졌다. 그리고 그 끝에 음악적 정수를 모아 탄생한 것이 바로 박종선류 아쟁산조다.

산조아쟁은 정악아쟁을 개량해 만든 것이다. 악기 개량이 유행처럼 번지던 1930년대, 국극이 성하던 시절에 반주악기의 필요가 맞닿으면서 신선한 시너지를 냈다. 산조아쟁과 정악아쟁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크기다. 개나리활대를 사용한다는 점은 같지만, 산조아쟁은 정악아쟁에 비해 몸집이 작은 만큼 줄과 줄 사이도 좁고, 음역도 높다. 활대의 굵기와 길이도 정악아쟁에 비해 짧고 가늘어 비교적 투박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산조아쟁은 작은 몸집으로 날렵하게 중저음 소리를 담당하며 여러 극에서 반주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하지만 1960년대 TV·라디오를 통해 새로운 문화 양식이 확산하면서 국극에 쏟아지던 스포트라이트가 분산되자 창극은 쇠퇴기를 맞았고, 이를 기점으로 반주악기로 활약하던 산조아쟁은 '산조'라는 형식의 기악곡 연주 악기로의 변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박종선 역시 이러한

분기점에 맞춰 극단에서 음률을 고르던 그의 손끝에 음악적 정수를 모아 새로운 유파의 아쟁산조를 만들었다.

박종선류 아쟁산조는 스승인 한일섭의 가락에 박종선의 선율을 더해 완성된 것이다. 즉, 한일섭의 가락이 기본 골자가 되며, 그보다 곡이 길다. 여기서 그 스승의 음악 이력을 살짝 짚어보자면, 한일섭은 본래 소년 명창으로 이름을 알렸던 인물이다. 하지만 변성기를 겪으면서 연기와 기예 등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1952년 국악사 악사장으로 재직하며 아쟁 연주를 시작한 끝에 여러 방면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아쟁산조를 창안했다.

박종선류 아쟁산조는 느린 진양조장단으로 시작해 중모리장단-중중모리장단-자진모리장단으로 이어지는 30분 길이의 기악 독주곡이다. 8줄의 아쟁 줄에서 2현부터 8현까지인 7줄을 주로 사용하고, 첫 번째 줄은 중중모리장단에서 단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잔농현과 기교의 완급 조절이 눈에 띄는 중모리장단의 선율 구조를 자진모리장단까지 이어 연주한다. 단, 자진모리장단에서는 산조의 최고 음역인 3옥타브 음높이까지 선율을 진행했다가 무장단으로 하행 선율을 풀어내는 것이 인상적이다.

박종선은 스승과 같이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 1960년대부터 광주시립국악원 강사로 악기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1981년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으로 이직하고 국가적 행사에 참여하면서 제자에게 가락을 전승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 거기다, 1992년부터 1998년까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2대 예술감독까지 역임하며 민속악계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이 빛을 발했을까. 2009년, 그의 아쟁산조가 서울특별시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고 박종선은 시도무형유산 예능보유자가 됐다.

현재 아쟁산조는 한일섭류·박종선류·윤윤석류·박대성류·정철호류·김일규류가 전승되고 있다. 이 중에선 박종선류 아쟁산조가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유일한 유파다. 그리고 그 유파의 창시자가 세상을 떠났다. 슬픔에 젖어 지난 시기를 돌아볼 수도 있겠지만, 유독 자연이 아름다움을 뽐내는 시기인 만큼, 자연 속에서 담담하게 한 예인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는 건 어떨까. 그가 남긴 목지한 음악의 길고 짧은 음률이 함께한다면 더 진한 감동이 있을 거라 믿는다.

그림으로 벚꽃엔딩

박이현 럭셔리 매거진 피쳐 디렉터

“더위가 너무 빨리 찾아왔다.” 어찌 된 영문인지 해마다 이 말을 하는 시기가 빨라지는 것 같다. 분명 3월 마지막 주에는 제법 쌀쌀해서 두툼한 옷을 챙겼건만, 며칠이 지나니 거짓말이라도 하듯 콧잔등에 땀이 제법 송골송골 맺히더라. 우스갯소리로 4월을 벚꽃 연금 시즌이라 하는데, 올해는 연금 개시 기간이 짧았다고 한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지는 날이 점점 짧아지는 게



이리 아쉬워질 줄 몰랐다.

그러나 이러한 헛헛함을 상쇄하는 존재가 있다. 바로 그림이다.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그림 속 대상은 꽃비가 내리든 봄비가 내리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은가. 어떤 때는 그림이 캔버스 밖 우리가 사는 세상의 분위기를 미화하기도. 그래서 준비했다.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이 빚어내는 황홀함과 그림이 주는 간간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5월의 콘텐츠 여행.

첫 번째 장소는 평창동 '화정박물관'. 평창동은 도심 속 쉼터다. 다소 불편한 교통만 감내하면, 눈과 코가 편안해지는 동네에 들어설 수 있다. 일 년 내내 녹음이 우거진 건 기본.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 보이는 북악산과 북한산은 시간에 맞춰 형형색색의 옷으로 갈아입는다. 봄의 붉은 철쭉과 가을의 주황빛 단풍은 매혹 그 자체다. 시내보다 숨쉬기도 수월하다. 백사실계곡부터 북악 팔각정까지 걸어서 50분이면 충분한데, 그동안 평소 먼지에 지친 코에 휴식을 줄 수 있다. 팔각정 앞에 펼쳐진 서울 경관은 탄성이 절로 나온다. 파노라마 뷰에서 용의 꿈틀거림이 떠오른다. 개인적으로는 거친 기운을 뽐내는 인왕산 방향이 멋있다. 선조들이 인왕산을 왜 수목화에 옮기려 했는지 이해가 된다.

여운을 간직하고 싶다면, 백사실계곡으로 돌아와 근처 화정박물관에서 《고인물전 古人物展》(6월 30일까지)을 감상해보자. 한·중·일 초상화와 고사인물화 故事人物畫(역사적으로 업적이 뛰어난 인물의 일화를 그린 그림), 일본의 우키요에 등을 만날 수

있다. 예스러운 감정을 이어나가기에 제격이다. 전시는 한국과 중국의 초상화를 비교하는 것에서 시작해 옛사람들이 지향했던 고결하고 청렴한 인물의 삶을 묘사한 작품, 신선과 승려의 신기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 대중에게 인기 있던 문화를 그림으로 구현한 작품으로 마무리된다. 김기창의 〈상산사호 商山四皓〉1970, 장원의 〈절애관송도 絶崖觀松圖〉20세기, 채용신의 〈숙부인 황씨 초상 淑夫人黃氏肖像〉20세기 초, 프랑스 풍자만화가였던 프라이Pry의 석판화 〈조선의 황제〉1899 등이 눈길을 끄는데, 이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과 시대상·지역상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중간 기착지는 수하동의 'KF갤러리'다. 온통 빌딩만 있어 의아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곳에선 거리의 모습과 소개할 작품이 중첩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청계천은 서울 시민의 안식처로 불린다. 직장인에게는 사막속 오아시스와 다름없다. 점심을 먹은 뒤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청계천을 걸으면서 마주하는 자그마한 폭포와 수풀, 새와 버들치의 어울림은 여백을 살린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하다. 이 장면을 청계천 옆에 서 있는 빌딩에 올라가 바라보면, 점·선·면으로 이뤄진 패턴처럼 다가와 초현실적인 느낌이 든다.

현재 KF갤러리에선 폴란드 사진작가 마르친 리체크Marcin Ryzek의 개인전 《조화》(5월 24일까지)가 진행되고 있다. 인간과 자연, 평화를 주제로 하는 그의 사진 특징은 간결한 기하학적 요소다. 또 불가근불가원의 시선으로 대상을 은유적으로 촬영한 덕분에 관객은 프레임 속 공간을 유영하며

여러 생각을 하게 한다. 한마디로 '최소 형식, 최대 의미'다. 마르친 리체크를 대표하는 작품은 단연 〈눈 속에서 백조에게 먹이를 주는 남자〉다. 그림자와 빛의 대비, 눈과 어둠의 조화를 강렬한 흑백으로 포착한 사진은 국제순수예술사진상Fine Art Photography Awards에서 최고상을 받으며 그를 유명 작가 반열에 올렸다. 이 외에도 전시에선 미국 이민을 다룬 〈Emigration〉, EU와의 통합을 지지하는 대중들의 시위를 선을 활용해 기록한 〈Border〉 등 다른 작업도 만나볼 수 있는데, 미니멀리즘 양식을 견지하는 까닭에 마치 중용이 미덕인 세계로 떠나는 상상을 하게 된다.

잠실 '롯데뮤지엄'은 이 여정의 종착지다. 잠실의 필수 코스는 산책로의 정수 석촌호수다. 석촌호수는 팔색조의 매력을 지녔다. 2.5킬로미터에 달하는 호수 둘레를 걸으며 꽃구경을 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체험할 수 있다. 어떤 날은 물 위에 러버덕과 주얼리 브랜드의 조형물이 떠 있기도, 어떤 날은 수변 무대에 청년 예술가의 공연과 열린 도서관이 오르기도 한다. 걷는 게 살짝 지루해지면, 놀이공원에서 새어나오는 즐거운 비명을 들으며 같이 웃으면 된다. 야경도 빼놓을 수 없다. 로맨틱 무드와 함께하는 데이트는 애정 지수를 무한정 올려준다. 이처럼 마천루 사이에 있는 석촌호수는 매일 가도 질리지 않는 명소다.

롯데뮤지엄에서 개최 중인 《녹턴시티》(5월 26일까지)는 마천루와 묘한 조화를 이루는 전시다. 작가 윤협이 서울·뉴욕·파리 같은 활기찬 도시를 단순화했다. 어린 시절부터 펑크와 힙합 등 서브컬처의 영향을 받은

그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자유롭게 누비는 즉흥적 감정과 리듬감을 종이 위에 함축적으로 그려내는 작가다. 밤의 옷을 입은 도시가 주는 적막함과 생경함을 밀그림 없이 점과 선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재즈를 좋아하는 취향에서 기인한다. 그는 악보를 그대로 연주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자유로운 영혼이라서일까. 나열된 점과 선을 보노라면 영화 〈라라랜드〉처럼, 리듬 게임처럼 당장이라도 경쾌한 스텝을 밟아야 할 것 같다. 《녹턴시티》를 즐기는 방법 하나 더. 어스름해질 무렵 전시장에 방문해보자. 롯데뮤지엄이 있는 롯데월드타워에선 밖을 내다볼 수 있는데, 실제 야경과 작가의 그림을 비교하는 재미가 꽤 쏠쏠하다.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BEST WISHES

'서울서커스페스티벌'로 봄 축제가 시작됩니다. 야외서 하는 행사를 준비할 때면 날씨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지난 주말에도 '문화가 흐르는 예술섬 노들'의 개막 공연 날에 아쉽게 비가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곳곳하게 자리를 지켜주신 관객들의 에너지와 흥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안도했던 것 같네요.

부디 다가올 서커스페스티벌은 화창한 날씨 속에서 무사히 잘 치러지도록 날씨 요정의 참석을 기다립니다.

이주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장



EPILOGUE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통한 외투가 꼭 필요했는데 어느새 한낮에는 반팔이 필요한 계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가벼워진 옷차림만큼이나 가벼운 마음으로 초록이가득한 계절의 여왕 5월을 만끽하시길!

안미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BEHIND THE SCENE



EPILOGUE

글쓰기는 어렵다. 먹고살기 쉽지 않다.

전민정 편집위원

주요 배포처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금천예술공장 대학로예술극장 문래예술공장 북서울시립미술관 블루스퀘어 상명아트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용산 서울문화재단(본관)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서부/중부캠퍼스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학창작촌 중랑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KT&G 상상마당 외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로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시면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라이브 하우스

뜻밖의 토크 콘서트



영화음악

— 김태훈

4/23(화)

5/7(화)



미술

— 김찬용

6/25(화)

7/23(화)



클래식음악

안인모 —

8/13(화)

9/10(화)



전통

이희문 —

10/1(화)

11/19(화)

2024. 4. - 11. 노들섬 라이브하우스

02-2105-2434
nodeulpp@sfac.or.kr

SEOUL MY SOUL

서울문화재단

노들섬

